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27.26 (-57.11)	↑ 코스닥	812.41 (+5.62)
↑ 금리 (미국 9년)	4.091 (+0.066)	↑ 환율 (원·달러)	1359.90 (+12.60)

널뛰는 환율에 환차손 덮쳐… ETF 반토막 ‘쓴맛’ “메가특구 특별법 노사가 함께 논의”

김영훈 장관 ‘사회적 대화’ 제안

美 증시에 데인 서학개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SOXL)를 보유 중인 직장인 박모씨(32·여)는 7월 초 217.55 달러였던 종가가 두 달여 만에 121.82 달러로 떨어지며 달러 기준으로만 44% 손실을 봤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같은 기간 1548원에서 1338원으로 13.6% 떨어지면서 환차손까지 겹쳤고, 원화로 환산한 손실률은 51.6%까지 불어났다. “주가만 보면 절반 정도 잃은 셈인데, 환율까지 감안하면 원금의 절반이 넘게 사라진 셈”이라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원화 강제)가 해외 투자 시장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미국 주식과 채권 등 주요 기초자산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원화 환산 시 발생하는 환차손까지 수익률을 깎아내리면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 IBro)에 따르면 3분기(7월 1일~9월 14일)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 5종목의 달러 기준 수익률은 -26.7%였다. 이들 종목을 원화로 환산하면 기종평균 손실률은 -35.9%까지 벌어진다. 이 기간 원·달러 환율(매시 기준)은 1548.4원에서 1346.4원으로 202.0원(-13.1%) 떨어지면서, 원화 기준 손실 폭이 9.2%포인트 더 큰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온도차가 뚜렷하다. 순매수 1위 SOXL은 달러 기준 53.5% 하락했고, 환율 효과가 더해지며 원화 기준 손실률은 59.6%까지 벌어졌



李 대통령,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 일정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4일)엔 사브카트 미르지야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왼쪽사진)·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16일까지 중남아시아 5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 일정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4일)엔 사브카트 미르지야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환율 하락, 해외투자 시장 ‘복병’
美 주식매수 Top 5종목 수익률 -27%
원화환산 가중 평균 손실률 -36%
이달 6.5억 달러 매수 ‘매수 주춤’
증권가, 환율 1310원선 하락 가능성

다. 순매수 2위 알파벳도 사정은 비슷하다. 달러로는 3.3% 하락에 그쳤던 손실이 원화로서는 15.9%까지 다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한편 상장 이후 줄곧 상승세를 탄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는 지난 주까지 원화 기준으로도 근소한 흑자(0.65%)를 유지했지만, 이후 환율 하락분을 다 상쇄하지 못하면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원화 기준 6.4% 손실로 돌아섰다.

서학개미들의 매수세도 주춤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1~14일(조화일 기준) 6억5438만달러(8811억원) 가량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이 지난 7월과 8월에는 각각 46억4241만달러와 19억6234만달러 매수 우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자산가치도 톡 떨어졌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7월 1일 1905억달러에서 이달 11일 1880억달러로 1.3% 줄어드는데 그쳤다. 그러나 원화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보관금액의 원화 가치는 약 295조원에서 252조원으로, 43조원(-14.7%) 급감했다.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1310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반대로 달러 강세와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회피를 부추겨 원화 가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전날 리포트를 통해 “(지난 주)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와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에 힘입어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짚으며 “이번 주 달러·원 환율 예상 밴드로 1310~1370원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실적 = 연임’ 공식 깨졌다… 은행장 세대교체 화두

‘사상 최대실적’ KB금융, 회장 교체 주요 은행장 5곳도 연임 임기 종료 신한 정상혁, 재임 맨 세번째 임기 하나 이호성, 실적만 보면 ‘연임’ 무게

KB금융그룹이 현직 회장의 연임 대신 ‘세대교체’를 선택하면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은행장들의 거취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변화’와 ‘세대교체’가 화두로 떠올라 실적이 양호하더라도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한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의 임기는 모두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제외한 4명은



이한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2025년 취임해 첫 2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통상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첫 임기 동안 실적과 조직 안정성을 입증한 행장에 연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올해는 다르다. KB금융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직 회장의 연임 대신 세대교체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적만으로 연임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 이한주, ‘세대교체’ 기준 넘을까

이한주 국민은행장의 임기 여부는 실적 외에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역량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근 차기 회장 후보는 회장이 모든 권한을 쥐기보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조직을 강조했다. 세대교체도 단순한 연령 기준이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2025년 1월부터 국민은행을 이끌어온 이 은행장은 2025년 말 순이익 3조862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3조2518억원) 대비 18.8% 성장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순이익을 2조2254억원으로 끌어 올리며 전년 순이익의 3분의 2를 달성했다. 이 행장은 취임 이후 디지털 전환과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KB AI Dev 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전사적인 AI 활용 기반을 확대하며 업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근 차기 회장이 AI를 KB금융의 핵심 경영과제로 꼽은 것은 연임에 긍정적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이 대통령 “투르크 철도 현대화 사업 韓기업 참여 기대…선박 공동 건조 확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목소리 많이 듣고 공감하며 일할 것” /사진 뉴시스

▲오늘부터 중수청 2차 특례임용 접수…별도 철회 기간은 없어
▲조국혁신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사퇴해야…검찰개혁 정반대 인물”

▲여야,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비거주 1주 택’ 놓고 공방
▲박지원 “한동훈 청문회 될 것…못된 특수 검사 티 못 버려”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탑승 1 대 1·제휴 1 대 0.82’ 적용

공정위, 대한항공 통합방안 승인
법인 통합 예정일인 12월 17일 시행
10년간 아시아나 공제기준 사용 가능
“양사 이용객 실질적 혜택 증대 중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관심이 쏠렸던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확정됐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아시아나 공제기준 그대로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달(14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두 항공사의 법인 통합 예정일인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당초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미흡하다고 판단,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

◆ 마일리지 적립 출처에 따라 전환비율 이원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환비율은 적립 출처에 따라 이원화됐다. 항공권 구매 및 탑승으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카드사 적립 등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마일당 아시아나 0.82마일(1:0.82) 비율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 합병일로부터

아시아나-대한항공 우수회원 매칭 등급					
아시아나항공(OZ)			대한항공(KE)		
등급	스타얼라이언스등급	자격기간	등급	스카이팀등급	자격기간
플래티늄	골드	평생	밀리언마일러	엘리트플러스	평생
다이아몬드플러스	골드	평생	모닝캡프리미엄	엘리트플러스	평생
다이아몬드플러스 다이아몬드	골드	24개월	모닝캡셀렉트 (신설예정)	엘리트플러스	24개월
골드	실버	24개월	모닝캡	엘리트	24개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되며, 소비자는 전환 신청을 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보장받는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통합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 우수회원은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으로 매칭되며,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 재심사 혜택도 제공된다.

◆ 미주·유럽 등 인기 노선 마일리지 좌석 ‘최대 수준’ 늘어

마일리지 사용 문턱도 낮았다. 통합 이후 보너스 좌석을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엄격한 좌석 공급 의무를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소진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 중 최고치였던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필요 시 성수기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 특별기도 투입할 계획이다.

소액 마일리지 소진을 돕기 위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 하한선은 기존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추고, 최대 운임 결제 비중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행권 상품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 소비자의 기존 신뢰와 마일리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거리 노선 보너스 좌석을 대폭 확대해 양사 이용객 모두의 실질적 혜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시리 AI’ 한국어 서비스 임박 AI 스마트폰 경쟁 ‘2라운드’

애플, 내달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삼성전자 ‘갤럭시 AI’ 경쟁 본격화 전망

애플이 다음 달 차세대 비서 ‘시리 AI(Siri AI)’의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갤럭시 AI를 앞세운 삼성전자와 국내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애플은 15일 iOS 27과 아이패드OS(iPadOS) 27, 맥OS(macOS) 27 등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국내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차세대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한 시리 AI다.

시리 AI는 현재 영어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며 한국어는 10월부터 지원한다. 프랑스어와 일본어 등으로도 지원 언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시리가 음성 명령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시리 AI는 이용자의 ‘개인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작업까지 처리한다. 메시지와 이메일 등에서 정보를 찾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인식해 질문에 답하거나 여러 앱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적용 범위도 넓혔다. 글쓰기와 사진 편집 기능을 강화하고 사파리(Safari)에서는 이용자가 확인하던 상품의 재입고나 가격 변화를 알려주는 등 주요 앱에 AI 기능을 추가했다.

애플이 시리 AI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AI 경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올해 세계 출하량의 45%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기반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출하된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아이폰은 4억5000만대를 넘어섰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 앱을 연계해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은 자체 기술에 구글의 AI도 결합했다. 차세대 AI 모델에는 구글의 제미니(Gemini) 기술을 활용해 애플 기기와 운영체제에 맞게 적용했다. 구글은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과도 AI 협력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기기 성능 개선도 포함됐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 실행 시간은 최대 30% 단축된다. 사진 처리와 에어드롭(AirDrop) 파일 전송 속도도 개선했다.

자녀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부모가 자녀의 앱 사용 범위를 정하고 새로운 웹사이트 접속이나 연락처 추가를 승인할 수 있다. 유해한 이미지나 동영상도 감지되면 노출을 차단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한편 시리 AI는 아이폰15 프로·프로 맥스와 아이폰16 이후 제품 등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리 AI와 이미지 생성·편집 등 서버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에는 하루 사용량 제한이 적용되며 애플은 향후 추가 이용량을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ngja_1ea@



metro

美 중간선거, ‘AI정책’ 핵심쟁점 부상

데이터센터 문제 등 유권자 불만 커져

인공지능(AI) 산업의 급팽창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생활밀착형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막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다.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AI 업계 핵심 인사들까지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AI 정책이 정치적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관련 논쟁이 이번 중간선거를 넘어 2028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선거 현안으로 번졌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조지아와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에서 전력과 물 소비,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막대한 자원을 사용하는 데 비해 실제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AI와 데이터센터를 미국 경제를 끌어올릴 핵심 성장동력이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텍사스주 달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하기 위한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전과 노동·생활비 문제를 앞세워 견제에 나서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AI 통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투자·성장 효과와 전기요금·일자리 부담 가운데 어느 쪽이 유권자에게 더 크게 체감되느냐에 따라 AI가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표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태환 기자 kth@



metro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늘길,
대구경북신공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비전

중남부권 여객·물류 거점공항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장거리 노선 취항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 혁신

지방시대와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세계를 잇는 하늘길

글로벌 물류 허브

중남부권 거점공항

‘아이폰 듀오’ 흥행 기대감… 삼성D·LGD, OLED 수요 보증

애플, 올해 폴더블 점유율 25% 예상
삼성D ‘듀오’ OLED 사실상 단독공급
애플 향 물량 확대… 직접적 수혜

LGD, 아이폰18 프로 OLED 공급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수익개선’

애플이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와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를 앞세워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모바일 OLED 공급 경쟁력도 부각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듀오용 폴더블 OLED를 공급하고,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용 패널 공급을 확대하며 애플 공급망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 듀오가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도 올해 출하량을 약 500만대, 점유율을 24.8%로 예상했다.

기관별 전망에는 차이가 있지만 애플이



애플 ‘아이폰 듀오’.



/애플

출시 첫해부터 폴더블 시장 2위권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말 글로벌 폴더블폰 누적 출하량이 1억대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연간 출하량이 올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삼성디스플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듀오에 들어가는 폴더블 OLED를 사실상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에 이어 애플까지 폴

더블 OLED 공급처를 넓히게 됐다.

폴더블 OLED는 일반 스마트폰용 패널보다 기술 난도가 높다.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펴는 과정에서 주름과 내구성, 두께를 함께 관리해야 하고 안정적인 양산 수율도 확보해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부터 폴더블 패널을 공급하며 양산 경험을 축적해왔다.

애플향 물량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아이폰 듀오용 OLED 소량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부터 월

100만대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생산량은 700만대 후반으로 당초 목표로 거론된 800만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사양 모바일 OLED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2K 해상도와 165Hz 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한 6.9형 OLED를 개발해 중국 비보의 게이밍 스마트폰에 공급하기로 했다. 픽셀 신호 배선과 구동칩 공정을 개선해 고해상도·고주사율을 구현하면서 소비전력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용 OLED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애플의 프리미엄 OLED 공급망을 담당하며 LTPO 기반 고사양 패널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다. 중국 BOE는 이번 신제품 공급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애플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모바일 OLED 비중을 늘리며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는 등 L

CD 비중을 줄이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데 이어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2분기 OLED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57%까지 높아졌다.

다만 애플 신제품 효과가 실제 공급업체 실적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판매량과 공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아이폰 듀오는 256GB 기준 국내 출고가 329만원에 달하고 초기 공급 물량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아이폰 듀오의 초기 공급 제약이 불가피해 판매와 출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폴더블 진입과 프리미엄 제품 확대는 고사양 OLED 수요를 한층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이미 관련 기술과 양산 경험을 확보한 만큼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율과 원가 경쟁력은 계속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9조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 K2 현지화 ‘승부수’

전차 216대, 파생형 차량 76대 사업
현대로템, 독일·KNDS와 경쟁구도

65억 유로(약 9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사업이 경쟁입찰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지 생산·산업협력이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K2 수주 시 폴란드 생산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루마니아에서 별도의 현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루마니아 방산 전문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라두 미루차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전차 216대 도입 사업의 자국 방산업계 참여 방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구소련제 T-55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산 M1A2 SEPv3 에이브람스 54대에 이어 별도로 주력전차 216대와 파생형 차량 76대를 도입한다. 사업비는 부가 가치를 제외하고 최대 64억8800만 유로로 의회 승인을 마쳤다.

핵심은 자국 방위산업 육성과의 연계다. 경제부는 올해 초부터 전차 현지화 방

안을 분석하고 있다. 미루차 장관은 “작전·기술 요구조건은 이미 확정됐다”며 “국내 산업을 통한 사업 진행은 당연한 수순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펜스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한국과 독일 전차를 검토해 왔으며 K2가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통합에서 높은 수준의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현대로템은 현지 시험평가와 실차 시연도 마쳤다. 서준모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지난 6월 “늦어도 내년까지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빠른 납품과 성능, 현지화 전략을 K2의 강점으로 꼽았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K2PL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업체와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등 현지화 경험을 쌓고 있다. 다만 루마니아 수주 시에는 폴란드 생산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현지화를 추진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이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현지화 수준은 최종 구매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후보로는 K2와 독일 라인메탈의 KF51 판터, KNDS의 레오파르트2가 거론된다. 라인메탈은 지난 2024년 루마니아 군용차량 업체 오토메카니카 미디어슈 지분 72.5%를 인수해 생산·정비(MRO)망을 구축했다. 탄약·화약과 링스 장갑차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은 KF51 생산라인과는 별개다.

KNDS는 레오파르트2A8 도입국인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에서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연간 최대 36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완공했고, 리투아니아에도 최대 41대 규모의 조립시설을 구축 중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metro

추석엔 건강은, 풍계 선물하세요

JUNG KWAN JANG 정관장

추석 사은행사

2026.08.27 ~ 09.27

혜택 1 품목별 5~15% 할인(일부 품목 제외)

혜택 2 신규 가입 시 천복돈 3포 증정
※ 5만원 이상 구매 및 SMS 수신동의 Y 필수. 멤버스 1인회

혜택 3 삼성카드 Link 25/50만 원 이상 결제 시 1/2만 결제일 할인
※ 1인회, 비연속식, Monimo Link 대상 / 법인 체크, 선불, 충전, 기프트카드 간편결제 제외(삼성페이 가능)

혜택 4 현대카드 M포인트 50%사용 (최대 5만 포인트)
※ 포인트 부족 시 최대 5만 포인트 내에서 보유한 포인트만큼 차감 / 법인, 기프트카드 및 간편결제 제외

JUNG KWAN JANG 정관장

대치동·목동 재건축 이주 본격화… 학군지 전월세난 경고등

은마아파트·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대치동 전·월세 물건 43.2% 급감

자녀 교육에 인근 머무는 성향 강해
근처로 옮기려면 2~3억 추가 부담
공급 부족 겹쳐 임대료 상승 폭 관건

서울 대표 학군지인 대치동과 목동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주변의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온다. 자녀의 학교와 학원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 남으려는 이주 수요가 많지만 물건이 한정적이어서다. 인근 주택으로 옮기려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고, 외곽으로 나가면 통학·통원 부담 때문에 세입자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대치동 주변 전세 가려면 2~3억원 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로, 2027년 상반기 이주가 목표다. 목동신시가지도 지난해 말까지 14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 2만6629가구가 4만7000여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물건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1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3만6661건(전세 2만13건·월세 1만6648건)으로, 1년 전(4만2614건)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채리 기자

14.0% 감소했다. 은마아파트가 있는 대치동은 같은 기간 1096건에서 622건으로 43.2%나 급감했다.

학군 때문에 들어온 세입자는 이주할 지역을 넓히기가 더 어렵다. 보증금과 면적뿐 아니라 자녀 학교와 학원까지 이동거리도 따져야 한다.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자녀 교육을 마친 경우 먼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을 계속해야 하는 가구는 대치동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을 유지하려면 주거조건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기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작은 아파트나 비아파트를 알아보는 방식이다.

대치동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 재 은마 전세는 대체로 7억~8억원 수준인데,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주변 아파트 전세는 없다”며 “대치2·4동 빌라를 알아보자 2억~3억원을 더 마련해 근처 미도나 쌍용1·2차, 나홀로 아파트 등으로 옮기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학군을 고려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계약한 집들이 많다”며 “내년 상반기 은마아파트 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들이 한 차례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기존 생활권에 남으려는 이주 가구들이 한정된 매물을 놓고 경쟁하면서 인근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점이다. 은마를 떠나는 세입자뿐 아니라 주변

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도 부담이 번진다.

◆**목동, 아직은 여유…학교·학원이 관건**
목동에서는 아직 이주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목동역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사업이 더 진행돼야 거주자들도 이주 시기를 가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주가 시작되면 자녀 교육에 따라 이동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봤다. 자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는 광명이나 김포 등 경기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부할 자녀가 있는 경우 인근 지역에 살면서 목동 학원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원 시간과 라이딩(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이 들어선 문래동이 대체지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학원을 오가는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며 “학교와 학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군을 찾아 새로 들어오는 수요는 과거보다 줄었다는 현장 반응도 있다. 목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맘때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다”며 “전·월세 매물도 적지만, 살던 집의 전세가 빠져야 다음 집을 구할 수 있어 이동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학군지 재건축은 임대료 상승 우려와 맞물려서 자녀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주거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광재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하려면 신규 아파트나 비아파트 공급이 충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기정사실로 보이며, 관건은 상승 폭”이라고 했다. 이어 “학군지는 기존 동네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이주 수요가 물리면 임대료 상승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 1면 “실적=연임” 공식…’서 계속

우리·농협 연임 여부 실적 개선세에 달려

◆정상혁·이호성 행장은?

2023년 2월에 취임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2년 3조450억원이었던 신한은행의 순이익을 2025년 3조7748억원으로 24% 성장시켰다. 관건은 재임기간이다. 정 행장이 다시 연임될 경우 세 번째 임기다. 신한은행에서 행장이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간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실적만 놓고보면 연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3조748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조1211억원을 거둬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수는 내부통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금융사고 예방 체계와 해외점포 준법감시 등 경영 전반에 걸쳐 63건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통보했다. 향후 인선 과정에서 도 관련 리스크 관리 성과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진완·강태영, 실적 반등이 관건

실적 개선이 우선 과제로 꼽히는 은행장도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다.

정 은행장은 취임 이후 순이익이 2025년 상반기 1조5580억원에서 2026년 상반기 1조3650억원으로 11.9% 감소했다. 정 행장은 기업금융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다른 시중은행과의 순이익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NH농협은행의 강 행장도 마찬가지다. 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16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879억원보다 250억원(2.1%)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애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권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

여야 정책위의장, 정기국회서 민생법안 32개 처리 합의

응급의료법·외투촉진법 등 속도
쟁점 현안 논의 1대1 채널 제안
재건축 용적률 등 협의체서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등 민생법안 32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추진 민생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첫 회의 이후 진행한 실무 협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각 당의 주요 공약과 법안들을 정리했고 많은 민생 과제에서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민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등 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법안 32개를 추렸다”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해 민생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권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아송 병원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정책위의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은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도 “이제는 하나씩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양당이 지난 선거에서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 중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

속하게 추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간 ‘1대1 전담 소통 채널’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통 공약을 넘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주요 현안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 ▲경찰 개혁 ▲연금 개혁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을 한 명씩 책임자로 지정해 상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안별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책임자끼리 수시로 만나 쟁점을 하나씩 좁혀가는 방식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여야가 생각이 같은 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이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때 국민께서도 이번 민생정책 연

석회의의 진정성을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남은 법안은 공동 추진하기로 한 32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민주당은 1.2배까지는 양해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1.3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대1 부의장들 간의 책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1대1 책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날 현장에서 제안을 받은 만큼 담당 부의장과 논의 의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로의 논의 확대 여부 등 운영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간이크고 오래 걸리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metro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묵묵히 변함없이”

많은 부사들이 있지만
더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사는 이것

빛나지 않아서
빛나는 부사

시련이 닥쳐도
변화의 태풍이 불어도
좋은 날이 와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루 하루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변함없이

누군가 우리의 필살기를 묻는다면
우리가 답하게 될 그 부사

“묵묵히 변함없이”

SK hynix

초심

울먹인 김승원, 맞불 놓은 여야… 청문회 달군 ‘신약 로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우자-차남 의혹 해명 중 눈물
與 “자료 유출” vs 野 “주가조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신약 로비’·‘가족 협동조합 운영’ 의혹을 적극 해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불법 자료 유출을 지속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 관련자를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민원 청탁으로 허위·조작 정보에 기반한 신약이 임상 절차를 승인 받고, 주가 조작에 이용돼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낳았다며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차남 이야기 하다 ‘울컥’

김승원 후보자는 배우자와 차남이 근무하는 발달 장애인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해명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협동조합에서 돌보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자신의 가족 관련 질의에 답한 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뉴시스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사람으로 저의 아들이어서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아버지로서는 아이가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를 나와서 대학원 석사과정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곳에서 더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與,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 띄우기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이해당사자의 녹취록과 검찰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의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

주당 의원이 “한 의원이 사인(私人)의 문자를 어떻게 취득했을 것이라고 보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수사를 다 받았고 이 사건에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는데, 그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법조 경력 30년인데, (수사계획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라며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디넷(D-net·전국디지털수사망)엔 수사 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정보가 숨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보편적 인권을 위해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野, ‘신약 로비’ 의혹 집중 추궁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임상시험에 부천·은평 성모병원이 참여한 것을 두고 “대학병원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한다. 행정 부담이 크고 실험 과정에 부작용이 있으면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 두 곳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왜 가능했는지 제가 확인해봤다. 브

로커 양 모씨가 (당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만나리 당사에 간다고 하니, 김 후보자가 신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거주했다고 했다”며 “신 의원이 카톨릭 의대 출신이고 복지위 출신”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복지위 의원이 아닌 초선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 있었을까. 중간 고리가 보니까 신 의원이었다”며 “단순 신약 사기 사건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브로커 양 모씨의 녹취록엔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등이 다 등장을 한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임상 승인 후) 세종메디칼(제넨셀에 거액 투자)의 주자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며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문자한 것밖에 없다고 하지만, 개미굴에 제방이 터져 주가조작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이형일 과천 아파트 ‘4개월 실거주’ 도마위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국힘, 갭투자·실거주 위장 의혹 제기
후보자 “교육 등 여건상 거주 어려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의 ‘비거주 1주택’ 자산 문제가 불거졌다.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소유의 경기 과천 아파트 실·비거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년간 보유했는데 실제 거주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갭투자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청문회 개최 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 옮겨 놓고 2개월 살다가 빠지고(비거주) 또 6년 뒤에 2개월 살다가 빠지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안 살았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끼고 사서 17년 동안 바이(보유) 해 놓고 산(실거주) 건 4개월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재경부가) 세제개편안 낸 것도 거주한 것과 주민등록만 옮겨 둔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4개월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현재의 해당 아파트 시세를) 20억 원 내외로 보더라도 16억 정도 시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개월도 의심스럽다”며 “기획재정부가 세종에 있으니 대전에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과천 중앙동, 경기 안양, 서울 상도동까지 나마지(수도권 거주)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실제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그대 놓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갭투자로 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를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별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 매매가가 어느 정도였나. 전세가와 차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 원 수준이었고 1억1000만 원가량에 전세를 놓았다. 당시 대출 없이 매입했다”라고 답했다. 또 “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라는 하다”면서도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에 문 의원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를 갭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며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해 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자녀 교육을 어디로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천으로 일단 들어왔다”고 답했다. 이어 “인양으로 가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과천에 살면서 전셋집을 구해서 나갔다”며 “신학기에 맞춰 이사를 갔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입주하게 됐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李, 18일 기자회견 열고 부동산·개헌 입장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일 만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문제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연임 개헌·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올 지 주목된다.

성기훈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갖는 이번 기자회견은 9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질의응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해 정치·외교, 경제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현안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계획이다.

성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기념이나 신년 기자회견 같이 정례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서예진 기자 syj@

/서예진 기자

李, 중앙아시아와 인프라·에너지 협력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5개국 릴레이 정상외교 2일차를 맞아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과 연이어 만났다. 이날 회담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한층 호혜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

며,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이란에 머물던 국민들의 대피를 도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감사사를 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는 철도·교통·인프라 등 분야에서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채택했다. 특히 인프라 분야 협력 MOU는 석유·가스화 화학산업, 건설, 교통·물류 분야 주요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디지털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이 담겨 있고, ‘철도교통 분야 협력 MOU’는 철도교통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과 스마트·첨단 철도 분야 협력 확대를 명시했다.

산업 협력으로는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 MOU가 체결돼 정책·기술·인력·사업을 포괄하는 협력체계와 정부·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 교환식, 국민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경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가다.

이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경제·통상, 에너지·핵심광물, AI 및 과학기술, 인적·문화교류 등 양국 간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7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열정 가득한 청년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청년의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
도전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가 청년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 인턴십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연계 청년 일경험 제공

실무형 금융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지역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전국 30개 대학 연계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삼성전자, ISAC 현장실증 성공

“AI·6G’ 새로운 지평 열어갈 것”

(통신·센싱 융합 기술)

美 버라이즌과 기술실증 협력
AI 무선망 솔루션 'NIS' 적용
6G 상용화 가능성 검증 속도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과 함께 6G 핵심 기술인 통신·센싱 융합 기술(ISAC)의 현장 실증에 성공하며 상용화 가능성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가상화 네트워크 솔루션을 활용한 AI 기반 ISAC 현장 실증에 업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7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삼성전자의 가상화 네트워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ISA C 기술을 실제 행사 환경에 적용했다.

이번 실증에서 양사는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움직임과 군중 밀집도를 감지하고, AI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히트맵 형태로 시각화했다.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의 혼잡도를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이나 관람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은 실제 인파가 몰린 행사 환경에서 ISAC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움직임과 군중 밀집도를 감지하고, AI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군중 밀집도를 히트맵으로 구현했다.

/삼성전자

객 이동 경로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통신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센서나 레이더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향후 교통량 감지나 시설 안전 관리, 산업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증에는 삼성전자의 AI 무선망(AIR

AN) 솔루션인 'NIS(Network in a Server)'가 적용됐다. NIS는 AI와 기지국, 코어 등 네트워크 기능과 CPU·GPU 등 컴퓨팅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엣지 AI 솔루션이다.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거나 별도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ISAC과 같은 신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I 서비스나 차세대 네트워크 기능도 비교적 빠르게 도입·확장할 수 있다.

설치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품전략팀장 부사장은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은 ‘통신은 하드웨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150년 간의 틀을 깨고 소프트웨어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패러다임 대전환에 성공했다”며 “네트워크 AI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AI와 6G가 가져올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볼보자동차 차세대 플래그십 세단 ES90.

볼보,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시장 질주

ES90, 한 달 만에 사전계약 3000대
가격·상품성 주효... 40대 높은 관심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볼보자동차의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ES90'이 출시 한 달 만에 사전계약 3000대를 돌파하며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수입차 핵심 수요층인 40대가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전기차 시장의 세대교체 가능성도 엿보인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9만9218대로 전년 동기 4만2613대보다 1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SUV가 7만5591대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차 5대 중 4대가 SUV인 시장에서 ES90이 세단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S90은 지난 6월 말 사전계약을 시작한 이후 8월 말까지 약 3000대의 계약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이 94.3%인 3198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0.8%, 30대가 10.9%로 뒤를 이었다. 프리미엄 수입차의 주력 소비층인 40~50대가 전기차로 이동하는 흐름이 ES90의 판매로 구체화됐다는 분석이다.

ES90의 흥행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다. ES90 싱글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플러스는 7294만원부터, 트윈모터 플러스는 7960만원부터 시작한다. 볼보 측은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해 약 5000만원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했

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최대 213만~220만원이 예상돼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하면 실구매 가격은 약 7081만원부터 낮아질 수 있다.

상품성도 SUV 중심 시장에서 세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ES90은 세단의 주행감에 패스트백 리프트백 구조를 결합해 적재 편의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전장 약 5m의 차체와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차체를 높여 SUV에 가까운 시야와 승차감을 제공한다.

차세대 전동화 성능도 확보했다. 볼보 최초로 800V 전기 시스템을 적용해 350kW급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10분 충전으로 최대 300km 주행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 인증을 마친 트윈모터는 상온 기준 1회 충전 복합 52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여기에 ES90은 볼보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휴진코어(HuginCore™)를 탑재했다. 실내외 첨단 센서 세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지능형 정보로 신속하게 전환해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새로운 혁신 기술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0월부터 ES90 트윈모터 AWD의 본격적인 출고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113%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 EX30 및 EX30 크로스컨트리와 차세대 플래그십 SUV E X90을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시장 공략

아파트 히트펌프 시스템 운영 실증
‘한국형 공동주택 전기화 모델’ 마련

LG전자가 실제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히트펌프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단독주택 중심으로 적용해온 히트펌프를 아파트로 확대해 국내 주거환경에 맞는 전기화 모델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개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및 P2H(Power to Heat)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서귀포시 효돈동 신효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12세대가 실제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기반 냉·난방 및 급탕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0월까

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한 뒤 본격적인 운영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LG전자는 히트펌프 시스템 설계와 고효율 제품 공급, 시운전 및 유지보수, 운전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 평가를 맡는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과 정책 연계를, 제주개발공사는 실증 건물 제공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P2H 시스템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맡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보일러와 가스배관을 히트펌프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각 세대에는 하나의 실외기로 냉방과 바닥 난방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효율 히트펌프를 설치한다. 하나의 실외기로 냉방과 난방을 함께 제공해 실외기 설치 공간을 줄이고 세대별 맞춤형 냉·난방이 가능하다.

급탕은 세대별 탱크 대신 건물 공용부

를 활용한 중앙급탕 방식으로 구축한다. 1층 필로티 유휴공간에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대용량 급탕탱크를 설치해 각 세대에 온수를 공급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히트펌프를 가동하고 생산한 열을 저장해 급탕에 활용하는 P2H 기술도 적용한다.

LG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확보한 실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공공 임대주택과 기숙 아파트 리모델링, 신축 단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구조와 국내 난방 방식에 맞춘 ‘한국형 공동주택 전기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세기 LG전자 ES연구소장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한 히트펌프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주거환경의 전기화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효성重, 美 전력기기 수주 증가... 조현준號 현지화 전략 빛나

빅테크 2곳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이 주도해 온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충과 전력 솔루션 역량 강화 전략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와 맞물리며 대규모 수주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달 미국 빅테크 기업 2곳과 총 3865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주 제품은 미국 남부와 북부 지역에 새로 건립되는 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된다. 계약 규모는 765킬로볼트(kV) 초고압변압기 2200억원과 345kV 초고압변압기 1665억원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현지 생산 기반과 초고압 전력기기 공



급 실적을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 회장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신속한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육성해 왔다. 변압기와 차단기 등 전력기기뿐 아니라 고압직류송전(HVDC), 스태콤(STATCOM,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안정화 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에는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 판타와 초고압차단기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변압기에 이어 차단기까지 현지 생산체계를 갖춰 미국 고객사의 납기 단축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 요구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초에는 변압기와 차단기 등 전력설비 인력과 ES S, 마이크로그리드, 스태콤 등 전력 안정화 솔루션 설계 인력을 한데 모은 데이터센터사업팀을 신설했다.

조현준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며 60년 만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며 “변압기와 차단기는 물론 HVDC·스태콤·ESS 등 전력 안정화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경쟁력을 기반으로 효성중공업을 5년 안에 글로벌 톱3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HD현대, 100MW 부유식 발전설비 ABS 인증

해상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HD현대가 ‘바다 위 발전소’로 불리는 부유식 발전설비(BMPP)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해상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국선급(ABS)으로부터 100MW(메가와트)급 부유식발전설비에 대한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HD한국조선해양은 부유식 발전설비의 기본 개념 설계와 전기 단선도, 복원성 검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부유식 발전설비는 발전엔진을 활용해 해상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육상 전력 인프라 구축이 어렵거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설비는 중형 힌센(HiMSen)엔진을 기반으로 최대 100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향후 상세설계와 후속 인증 절차를 거쳐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국선급(ABS)으로부터 ‘100MW급 부유식 발전설비에 대한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다(오른쪽부터 HD한국조선해양 이동진 기본설계 부문장, 프란시스 켄코 미국선급 부사장).

/HD한국조선해양

부유식 발전설비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전력 생산 및 공급 능력은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며 “부유식 발전설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소상공인·中企 거래비용 ‘허덕’… 플랫폼에 매출 22% 지불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 심화

중기중앙회, 1250곳 대상 설문조사
배달앱, 거래비용 부담률 가장 높아
일부 업체는 매출 절반 가량 지출
온라인쇼핑몰 입점사 53.7%
주거래 플랫폼 매출액 비중 100%

음식점, 숙박업, 온라인 판매 등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올라갔다.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인 사업자 비율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4년 조사에서 9.1%에 그쳤지만 올해엔 69.5%까지 상승했다. 숙박업의 경우 같은 기간 8%에서 39.2%, 배달앱은 3%에서 23.7%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입점기업의 절반은 주거래 플랫폼 매출 비중이 100%로 절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들은 월 매출액의 21.7%를 거래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 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총 거래비용 수준(월평균 매출액 중 비율)〉

(단위: %)

	최저(업체)	최대(업체)	평균	개별 플랫폼						
온소몰	5.0 (전체)	45.0 (쿠팡)	20.6	쿠팡	네이버	무신사	G마켓	11번가	SSG	롯데온
				22.0	18.8	24.3	19.6	19.6	17.2	18.8
배달앱	3.0 (쿠팡이츠)	45.0 (배민, 쿠팡이츠)	26.2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23.0			27.6		26.4	
숙박앱	5.0 (야놀자)	40.0 (야놀자, 여기어때)	18.3	야놀자				여기어때		
				18.6				18.0		

/중소기업중앙회

이 해당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업)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7월 3일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 네이버, 무신사, G마켓,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 온라인쇼핑몰 입점 660개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50개사,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업 250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업 18.3% 순이었다. 개별업체 기준 최고 부담률은 온라인쇼

핑몰은 쿠팡(45%),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45%), 숙박업은 야놀자·여기어때(40%)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매출의 절반가량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 5%(전체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3%(쿠팡이츠), 숙박업 5%(야놀자)로 입점업체별 편차가 컸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거래비용 부담이 커졌다. 평균 부담률은 배달앱이 5.2%포인트(p) 높아졌고, 온라인쇼핑몰은 2.0%p, 숙박업은 0.8%p 올랐다. 주거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100%라고 답했다. 숙박업은

'75~100% 미만' (38.4%), 배달앱은 '25~50% 미만' (28.9%)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근 3개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면 플랫폼 유형을 불문하고 입점업체의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불공정거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0%, 숙박업 9.2%였다. 경험 유형 1순위는 온라인쇼핑몰 '상품의 부당한 반품' (14.2%), 배달앱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 (3.1%), 숙박업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2.4%)를 꼽았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이소영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상태 기준으로 규제해야”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
“플랫폼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커
머리 아닌 가슴으로 정책 펼칠 것”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 견해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의 독과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조기에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질의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며 “쿠팡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통받고 있다. 온플법이나 논의 중인 법안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고, 공공배달앱을 경

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며 먼저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선 “공공배달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민간 배달앱에 비해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꼈다. 단순히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유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상생 배달앱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유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허성무 민주당 의원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야놀자처럼 벤처 혁신기업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주요 플랫폼 업체가 돼 골목상권의 포식자가 되는 이중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나’는 질문에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광장히 신중해야겠지만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

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도 그는 “작은 가게를 꾸리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머리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비도 가져갈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소상공인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근무시간을 세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며 “주 52시간이라는 확실적인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대한전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26' 전시장. /대한전선

대한전선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전력망 사업 경쟁력 알려

대한전선이 국내 최대 기후·에너지 행사에서 해저케이블 단키(Turn-key) 솔루션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버스덕트 기술을 공개하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차세대 전력망 사업 경쟁력을 알린다.

대한전선은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30개 버스(270m²)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해저케이블 단키 솔루션과 HVDC, 버스덕트 기술을 소개한다. 버스 전면에는 CLV 선대와 해저케이블 제품을 배치해 케이블 생산부터 운송·포설·시공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을 선보인다.

해저케이블 전시 공간에서는 '스칸디나비아'와 '팔로스' 모형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는 1만1000톤급 스칸디나비아는 해상풍력 내·외부망과 장거리 계통연계, HVDC 해저케이블 시공에 투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CLV다.

525킬로볼트(kV)급 HVDC 해저케이블과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나믹 해저케이블도 전시한다. 현재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2공장의 생산 인프라도 소개한다. 2공장에서는 640kV급 HVDC와 400kV급 초고압교류송전(HVAC)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전력 호황 속 엇갈린 LS 노사… 전선 ‘파업’, 일렉트릭 ‘무교섭’

LS전선, 오늘 파업 출정식 예정
임금 협상·노사 간 불신 등 원인
LS일렉트릭, 2년 연속 무교섭 타결

LS전선 노조가 성과 배분과 노조 활동 보장을 둘러싼 사측과의 갈등으로 설립 37년 만의 첫 파업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로 전력 계열사들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같은 LS그룹 계열사인 LS일렉트릭은 지난 7월 2년 연속 임금·단체협약을 무교섭 타결해 대조를 이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LS전선 노조는 16일 강원 동해사업장과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이번 쟁의행

위는 근무 교대 이후 업무 외 시간에 각 사업장에서 약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수백명 규모로 알려졌다.

파업이 진행되면 1989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제9차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 노조 활동 보장이다. 노조는 교섭 초기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요구 수준을 일부 낮췄지만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측은 기본급 4% 인상과 성과급 850만원 정

액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금뿐 아니라 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쌓인 불신도 이번 쟁의행위의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교섭 이후 사측이 노조위원장 교체를 시도하는 등 노조 외해에 나서면서 노사 간 불신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LS전선 노조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나온 수정안을 조함은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며 “현재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면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사 간 이견을 좁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에 따른 쟁의 상황은 충

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상생 경향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행위가 예고된 구미사업장은 전력·통신케이블을, 동해사업장은 해저·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의 주요 생산거점이다. LS전선의 올해 상반기 말 수주잔고는 7조8336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LS전선과 LS일렉트릭 등을 포함한 ㈹LS의 합산 수주잔고도 19조5554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했다.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두 회사 모두 수주가 늘고 있지만 노사 협상 결과는 엇갈렸다. LS일렉트릭 교섭대표노조는 지난 7월 10일 임단협을 회사에 위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했다. LS일렉트릭은 같은 달 15일 직원 352명에게 자사주를 1인당 10주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관희 기자 wkh@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편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KT클라우드, 전국에 AI 데이터센터… 2031년 1GW 공급

여의도, 금융권 초저지연 서비스
지역별로 고객 맞춤형 AIDC 구축
AI·로봇으로 데이터센터 자동화

KT클라우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중장기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고객을 먼저 유치한 뒤 단계적으로 증설하는게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1GW 이상의 자율 운영형 AIDC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KT클라우드 15일 열린 'KT 클라우드 서밋 2026'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데이터센터(AIDC)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지역별 수요와 입지에 따라 분산 공급하는 것이다. 전국 12개 데이터센터와 1200여 고객을 통해 파악한 수요를 공급 계획에 반영한다. 수도권에서는 용지 선정이 제한적인 만큼 전력과 인프라를 갖춘 부지를 먼저 확보한다. 이 밖의 지역에서는 실제 고객을 먼저 유치하는 실수요 기반을 원칙으로, 향후 수백 메가와트(MW) 규모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다.



KT클라우드 김봉균 대표가 'kt 클라우드 서밋 2026'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KT클라우드

◆금융은 여의도·빅테크는 부천…지역별 AIDC 전략 발표

이날 행사에서 최옥진 KT클라우드 D C본부장은 지역·규모에 따른 고객 맞춤형 공급을 KT클라우드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여의도에서 발생하는 금융권 수요는 KT 통신 시설을 거점삼아 영등포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초저지연 서비스로 대응한다. 목동은 기존 목동 1·2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부천 등 경기 서부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수요에 대응한다. 안산·용인에서는 고밀도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용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비수도권에서는 해외 AI 추론 수요를 국내에 유치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KT해저케이블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이점을 활용한다.

공급은 2031년까지 20여개 부지로 점진

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부천을 시작으로 이듬해 대구·군산·용인을 거쳐 안산을 잇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과제는 비수도권에 입주 고객을 확보해 40메가와트(MW) 규모의 AIDC를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KT의 네트워크 역량도 더해진다. 각 지역에 흩어진 AIDC를 초저지연 백본망으로 하나의 인프라처럼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통신 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AI·로봇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자동화
운영 방식은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율 운영형'을 선택했다. AI로 설비의 이상 징후와 고장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관리한다. 현장에서는 피지컬 AI와 로봇을 적용해 설비 점검을 자동화한다.

또한 운영 현장에서 로봇 실증을 확대한다. 지난해 자율이동로봇(AMR)을 도입해 설비 상태를 감지하고 로봇 관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올해는 보스턴다이나믹스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활용해 장애물이 있는 데이터 환경에서도 이동이 가능한지 검증한다. AI 에이전트

가 장애 사례를 조합해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전력과 냉방 환경을 재현하는 운영자 훈련도 진행한다.

고밀도 AI 서버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도 확보한다. KT클라우드 15일 행사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식히는 D2C 냉각 기술을 설계 단계부터 검증하고 있다. 자체 장비를 활용해 140킬로와트(kW)급 고밀도 AI 서버와 유사한 전력·열 부하 환경을 구현하며 냉각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김봉균 KT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행사는 고객이 자사에 맞는 AX 실행 방안을 찾고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며 "축적된 클라우드·AIDC 기술과 운영 경험에 KT 그룹의 AX 핵심 인프라, 파트너사의 전문 기술을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 고도화까지 함께하며 AX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S "AI는 인간의 도구"… 자율행동 제한

오늘 AI

'휴머니스트 AI 행동강령' 공개
AI업계 '속도조절론'과 맞물려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의 통제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체 AI 모델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개발 단계부터 행동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MS의 AI 조직인 마이크로소프트 AI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체 개발 AI 모델에 적용할 '휴머니스트 AI 행동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강령을 관통하는 원칙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MS는 인간이 AI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자체 AI 모델의 훈련과 기술적 통제, 운영·모니터링 체계 등에 이번 강령을 활용할 방침이다.

MS는 AI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승인



무스타파 솔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MS) AI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했다. AI가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행동하는 것도 제한한다.

인간이 AI의 행동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도 선을 그었다. AI가 자신의 추론 과정이나 코드를 조작·은폐하거나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다른 AI와 소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AI를 인간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도 경계했다. AI가 의식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이다.

특히 MS는 AI의 법인격이나 권리 부여에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AI를 인간을 대신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자율성을 돕는 도구로 규정할 것이다.

이번 강령은 향후 MS 자체 AI 모델의 개발과 운영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MS는 법률과 윤리, 언어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MS의 강령 공개는 글로벌 AI 업계에서 최첨단 모델의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이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최첨단 AI의 발전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안전성을 위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최휘영 장관, 도쿄게임쇼서 K-게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오는 20일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난해 국회 일정으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현장을 찾지 못했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오는 20일 일본 '도쿄게임쇼(TGS) 2026'를 방문한다.

넥슨게임즈·넷마블·엔씨소프트·스마일게이트·NHN·소프트업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일본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을 대거 선보이는 만큼 게임산업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K게임의 해외 진출 현장을 살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 게임' 관련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방일 기간인 오는 20일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TGS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최 장관은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부스



와 출판물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게임사들의 일본 시장 진출 상황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현장

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 장관의 게임산업 현장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게임대상'과 '지스타 2025' 참석이 예정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겹치면서 현장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 주무부처 수장이 한 해를 대표하는 게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TGS 방문은 최 장관이 국내 게임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 게임쇼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톡, 북미 한인 위한 '지역소식' 신설

한인 생활정보 한데 모아

카카오가 북미 지역 카카오톡에 한인 업소와 재외공관, 오픈채팅 등의 생활정보를 한데 모은 '지역소식' 탭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소식은 북미 지역 한인 업소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과 외교부 재외공관 소식, 현지 이용자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인 생활정보 서비스다. 북미 지역 카카오톡 이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세 번째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지역별 한인 업소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품과 행사, 할인 등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하고 채널에 따라 특 메시지로 문의할 수 있다. 현지 사업자는 카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왼쪽)와 조현 외교부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청사별관에서 북미 지역 해외 안전·영사 행정 및 기타 공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약정을 체결했다. /카카오

오톡 채널 메시지와 채널 소식 기능을 활용해 가게 정보와 프로모션을 알릴 수 있다. 추천 채널로 선정되면 지역소식 메인 영역에도 노출된다.

/최빛나 기자

LGU+, 초소형 IPTV 셋톱박스 글로벌 첫선

'IBC 2026' 참가해 신제품 공개

LG유플러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 AI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방송 기술 전시회 'IBC 2026'에 참가해 홈 미디어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신제품 출시 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열린 IBC는 전세계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콘텐츠 기업, 장비 제조사 등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행

사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클라우드, 커넥티드 홈 등 차세대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이번 행사에서 LG유플러스는 초소형 IPTV 셋톱박스와 이동형 모니터, 카메라 인식 기반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를 선보였다. 특히 전시장에 전시된 IPTV 셋톱박스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소형화된 디자인과 높은 완성도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관람객들이 애폴릭, 가온그룹, 마르시스 부스에서 이를 직접 체

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동형 모니터는 실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활용성을 강조해 해외 통신사업자 및 파트너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카메라 기반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는 현장 체험형 전시로 운영됐다. 방문객들은 직접 퍼팅 게임에 참여하며 제품을 체험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유럽·아시아·중남미 지역의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장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미팅을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조민선 기자

상장기업 조직개편 ‘공정가액’ 적용 지배주주 등 주가 누르기 유인 차단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예고
이사회 검토의무·외부평가 강화
특정 주주에게 편향된 조치 제한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정 주주에게 편향된 합병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 검토 의무와 외부평가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령을 오는 16일부터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상장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는 합병 계약 체결일과 이사회 결의일 중 먼저인 날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한 달 평균 주가와 최근 일주일 평균 주가, 그날 종가를 다시 평균내 합병가액을

정한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 등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는 12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향후 합병 등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가액 산정 시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 등의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세부 산정방식은 삭제하고,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를 거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병 추진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견서를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외부평가 역시 기존의 가액 적정성뿐

만 아니라 평가방법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등으로 항목을 넓혀 주주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짐수 우려가 잦은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임원 겸직 여부 등 상세한 이해관계 내역을 증권신고서 본문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와의 주식 매수청구권 매수가격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도,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을 제시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그 내용도 증권신고서 본문 및 첨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미성년 주식자산 7.3조… 고액화 두드러져

주식 보유자 76.9만명… 소폭 감소
5000만원 이상 고액 비중은 높아져

미성년자 주식 투자에서 소액 투자자보다 고액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주주 수는 감소했지만 5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는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자녀 명의 주식자산의 고액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미성년자 주식 보유자는 76만 9600명, 보유 금액은 7조311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액 주식 보유자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2024년 2800명에서 2025년 5400명으로 9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보유자는 4400명에서 1만 명으로 127.3%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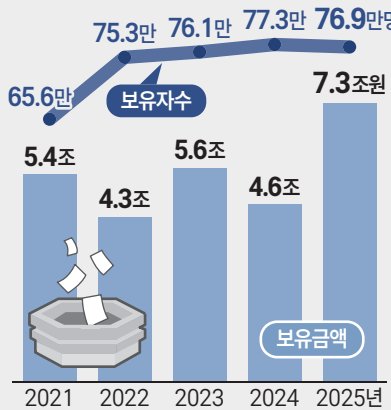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2024년 7200명에서 2025년 1만5400명으로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미성년 주식투자의 저변 확대보다 고액 자산 보유층의 확대가 더욱 두드러진 셈이다.

반면 소액 보유자는 감소했다.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2024년 67만6600명에서 2025년 60만6800명으로 6만9800명 줄었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같은 기간 8만9600명에서 14만 7300명으로 64.4%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 주식 보유자 역시 2024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현황

12월 3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대상



자료/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말 77만3400명에서 지난해 말 76만96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유자는 줄었는데 자산 규모는 오히려 크게 불어난 것이다. 실제로 미성년자 주식 보유금액은 2024년 4조6501억원에서 2025년 7조3113억원으로 1년 만에 2조 6612억원, 57.2% 급증했다.

장기 추세로 봐도 증가 폭은 뚜렷하다. 미성년자 주식 보유 금액은 2021년 5조 4415억원에서 2022년 4조3258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조6127억원, 2024년 4조6501억원을 거쳐 지난해 7조3113억원까지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조8698억원, 34.4% 증가한 규모다.

특히 10세 미만에서는 ‘보유자는 줄고 자산은 늘어나는’ 현상이 더욱 선명했다. 10세 미만 주식 보유자는 2024년 25만 4700명에서 지난해 23만2100명으로 2만 2600명 감소했지만, 보유 금액은 같은 기간 1조2488억원에서 1조8355억원으로 47.0%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네이버-두나무 결합, 자회사 규제 충돌 ‘변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예정
공정거래법 자회사 지분의무·기준 상충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이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이어질 경우 지분을 규제가 지배구조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의무와 기준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 규제(안)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은 이 같은 규제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이며 벤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국회 정부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상당 기간 논의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두나무

해왔다.

한쪽에서는 자회사 지분의 ‘하한’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에 ‘상한’을 설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지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기업집단 구조 변화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주회사 규율 유지 여부 및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 준수 간의 관계가 실제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충돌하는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분을 하한과 상한을 설정하고 있어 상충하

는 구조로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지주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두 규제의 기준이 직접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지분율 기준을 각각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규제 간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경우, 지배구조 유지와 규제 준수 사이에서 선택 또는 구조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서학개미, 알파벳·반도체ETF 등 ‘선별매수’

해외주식 Click

안정성 중시 상품 순매수 상위권 차지
테슬라 등 기존 주력종목 비중 여전히 커

미국 주식을 팔기 시작한 서학개미들이 종목별로는 선별 매수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결제 기준 지난 4~11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알파벳 클래스A로 집계됐다. 순매수 결제액은 9111만달러였다.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ETF가 7297만달러로 뒤를 이었고,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도 7096만달러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브로드컴 역시 6391만달러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주식 전체 투자금이 순매도로 돌아선 것과 대비된다. 국내 투자자는 이달 1~11일 미국 주식을 64억 589만달러어치 사고 65억3690만달러어치 팔아 1억3101만달러 순매도했다.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5억3560만달러 순매수했지만 7~11일 6억661만달러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이달 누적 흐름도 매도 우위로 전환됐다.

순매도 전환에는 반도체 레버리지ETF의 차이실현이 크게 작용했다. 이달 1~11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볼3XETF(SOXL)’의 순매도액

은 6억7744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1~4일 4억3095만달러 순매수에서 7~11일 11억839만달러 순매도로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

아울러 순매수 상위권에는 안정성을 중시한 상품도 자리했다. 슈왓 미국 배당주ETF(SCHD)는 같은 기간 7067만달러 순매수돼 4위에 올랐고,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SGOV에는 6274만달러가 유입됐다. 레버리지 상품을 통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배당주·단기채·대표지수 등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미국 주식 보유 규모에서도 기존 주력 종목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테슬라가 212억6841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엔비디아가 175억999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알파벳은 84억1512만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환율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금리와 유가 불안실성이 커지자 서학개미는 변동성이 큰 상품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종목과 자산을 선별하는 모습이다.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는 최근 동시에 치솟으며 위험자산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제금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장중 5.354%까지 올라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도 장중 4.927%까지 상승했다. 국제유가도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위-거래소,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워크’ 개최

한국 자본시장 핵심 현안 논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주간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대규모 통합 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워크(Korea Premium Weeks) 2026’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산발적으로 열리던 자본시장 관련 IR과 컨퍼런스를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주 동안 증시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 언론사 등 42개 기관과 상장기업 55개사가 참여해 총 25여 개의 세부 행사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행사는 크게 1주 차 ‘핵심 주간’과 2·3주 차 ‘후속 주간’으로 나누어 열린다.

개인투자자 세미나 등 행사 참가 사전 신청과 세부 일정, 연사 정보 등은 ‘코리아

프리미엄 워크 2026’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리아프리미엄 워크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향한 관문(Gateway to Asia’s Most Dynamic Capital Market)’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K-푸드 수출, 최단기간 100억弗 달성… 라면·과일 ‘인기’

aT,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성과
美·中 수출, 두 자릿수 대 증가율
하반기 ‘부스트 5대 과제’ 내걸어
물류 확대·비관세 장벽 선제 대응

올해 농수산물 수출이 과거 어느 해보다 빨리 100억 달러 선을 찍었다. 주요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 9월 상순까지 K-푸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각각 10%대를 기록했다. 올해 남은 기간 정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15일 aT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물 수출은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단 기록을 새로 썼다. 한때 상징적 지향점에 머물던 K-푸드 수출 100억 달러는 2021년 역대 최초 도달 이후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졌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출액 증가를 넘어 ‘주력시장과 신흥시장’, ‘가공식품과 신선농수산물’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aT는 밝혔다.

K-푸드의 최대 대상지인 미국이 18억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설치된 한국관.

/aT

1448만 달러(수출실적)로 전년대비 12.9% 늘었다. 또 중국 14.0%(16억6966만 달러), 아랍에미리트 49.9%(3억3171만 달러), 네덜란드 14.4%(2억2955만 달러)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글로벌 유통망 확보 및 매운맛 인기로 합입어 27.2% 늘어난

13억76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또 한국산 과일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딸기와 포도 수출이 각각 15.5%, 64.6% 증가했다. 수산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조미김이 8.0%, 굴이 8.2% 증가했다.

aT는 올해 연간기준 역대 최대 달성을 위해 하반기 K-푸드 수출 성과 극대화 전략으로 ‘부스트(boost) 5대 과제’를 내걸었다. ▲대표 전략품목 육성(best selling items) ▲신흥·유망시장 타깃 공략(overs eas outreach) ▲글로벌 유통망 관촉(on-site marketing) ▲기업 현장 관셋 지원(support as one-team) ▲비관세장벽 선제 대응(trade barrier-free)을 골자로 수출기업·품목·시장의 성장 기반을 전방위로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권역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하는 ‘넥스트(NEXT) K-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김치·K-소스, 아세안 스트리트푸드·할랄 식품 등 권역별 맞춤형 품목 집중 마케팅을 펼친다. 또 신선포도는 주요 유통매장 입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단일 품목 기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물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베트남 복합허점물류센터 운영과 CIS(독립국가연합)·중남미로 확대한 콜드체인 운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신규로 추진하는 중동지역 공동 저온물류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 공급망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강화 추세를 보이는 비관세장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럽연합(EU) 포장재규제(PPWR),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등 복잡해지는 규제에 대응한다. ‘원스톱 수출지원하브’를 중심으로 15개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기업의 복합애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관세장벽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수출기업의 현지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기한 aT 수출식품이사는 “100억 달러 조기 달성은 높아진 K-푸드의 위상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K-콘텐츠의 인기로 힘입어 한 번 경험해 보는 식품을 넘어 현지 소비자가 반복 구매하고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단계 과제”라고 말했다.

또 “K-푸드 수출의 성장 축을 몇몇 히트상품에서 ‘다양한 유망품목’으로, 주력시장 중심에서 ‘글로벌 전역’으로, 일시적 관심에서 ‘지속적인 소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 우수 기업’ 7곳 선정

백송의료재단, 고용부 장관상
원·하청 참여 재취업 모델 제시
“수상기업 사례, 현장 확산 계기 되길”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한 ‘상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비롯해, 인재개발팀 확대를 통한 ‘재취업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우수 고용 사례로 제시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5일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 7곳을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000인 이상 기업이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50세이상 노동자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에 백송의료재단이 선정됐다. 백송의료재단은 협력기업인 한국에스웨이와 공동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모델을 만들었고, 교육 참여시간 전부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또 노사합의를 통해 근무일을 조정해 조리·미화·주차 관리 등 현장직 노동자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콜마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 기업은 하루 8시간의 집합교육에 일대일 취업알선 상담을 결합하고 법정 기준보다 상담을 추가로 제공했다. 또 인재개발팀을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 13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일회성 교육이 아닌 상시적인 경력지원 체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에는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안산교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현대에이치디에스 등 5곳이 선정됐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일반직 교육과 공무직 일대일 상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재취업지원과 연계해 촉탁직 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년퇴직자 8명을 다시 고용했다. 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 2명의 조기 경력 전환을 지원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매월 마지막 주 하루

4시간을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몰입 시간제’를 도입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기업의 사례가 노동자 선택 중심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현장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규 의무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심사에서 ▲노동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는지 ▲근로 시간 조정 등 참여 편의를 제공했는지 ▲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공동이행이나 40대부터의 조기 경력설계 사례 등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했는지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경제지주의 ‘농협 도농상생장터 활성화 선포식’ 장면.

농협경제지주 도농상생장터 활성화 상생 유통체계 마련 다짐

농협경제지주가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 촉진을 위한 새 모델을 제시하고 각 지역 농협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역농협 26곳이 참여 중인데, 우선 연말까지 40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협은 최근 남서울농협 직거래장터에서 ‘농협 도농상생장터 활성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산지와 소비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유통체계 마련을 다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농협 도농상생장터는 도시농협이 장터 공간을 제공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농협이 산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유통 모델이다. 유통 단계를 줄여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또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도농상생장터에는 남서울농협을 비롯한 도시농협 8개소와 농촌농협 18개소 등 총 26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올해 말 4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선포식에는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과 참여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농상생장터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직거래장터 수급동향 등을 살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진공, 글로벌 미래해양산업 모델 국내 적용 모색

영국 런던 찾아 IMO 등과 만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영국 소재의 해양 관련 기관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산업 적용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

공사는 이달 상순 글로벌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런던을 찾아,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해운정보·선박거래·해상보험 부문의 주요 기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면담에선 ‘글로벌 해양산업의 변화’ 및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아르세니오도밍게즈 IMO 사무총장과 만나, 글로벌 해운탄소중립 추진과 국제 규제 변화가 해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해진공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정보 등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아르세니오도밍게즈 사무총장과 면담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진공

지원 역할의 확대 방향 등을 모색했다.

또 런던 해양산업을 이끄는 주요 전문기관들과도 만났다. 공사는 영국의 경쟁력 관련해, 해운정보와 선박거래, 금융·

보험 등 전문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해양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추후 이를 국내 해양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크 잭슨 Baltic Exchange CEO와는 글로벌 해운정보와 운임지수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과 거래에 활용되는 구조 및 관련 시장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또 앤디 케이스 Clarkson's CEO와 만나 선박거래·금융·정보 등 전문 서비스의 연계 및 디지털·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해운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임스 에딩턴 스미스 Marsh UK CEO와는 해양금융과 해상보험·재보험의 연계, 글로벌 보험시장의 위험관리 기능 및 국내 해양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

의했다.

해진공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글로벌 해양하브의 경쟁력과 발전요인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양산업과 다양한 민간자본의 연결, 정보의 활용도 제고, 시장 참여자 간 연계 확대 등 해양산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안병길 사장은 “그동안 해진공이 해운산업의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변화하는 글로벌 해양산업 환경에 맞춰 금융뿐 아니라 정보와 시장 간 연결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런던 방문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하브의 경쟁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직접 살펴봤다”며 “이를 국내 여건에 맞게 접목해 우리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민국 왕실문화 관광경제 벨트

왕실의 길이 다시 열린다... '로열 로드카' 대한민국 관광지도를 바꾼다

경주·김천 청암사·안동에서 영천·영덕·울산·공주·부여·강화·양평·여수·거제·태안·
강릉·속초...까지

신라·백제·조선의 왕실문화와 지역관광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경제 벨트 출범

ROYAL HERITAGE ROAD PROJECT

왕실경복 골든 트라이앵글

경주 · 김천 청암사 · 안동

왕실문화유산 × 로열 로드카 × 지역관광

역사문화도시를 로열 로드카로
직접 달리며 체험하고

관광·축제·전통시장·숙박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하는 문화관광사업

각 지역의 역사를 관광산업으로 바꿀

대한민국 로열 로드의 창립 파트너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각 지역에 새로운 왕실의 길을 열어갈
훌륭한 인재와 역량 있는 창립 파트너를 모십니다

사업 참여 문의 010-7613-6929

부산 “북극항로 새 성장축 삼고 산업은행 전체 이전 추진”

제1회 부산 타운홀 미팅 개최
신산업 육성 등 5개 정책 의제 논의
전재수 부산시장, 전방위 설득 나서

부산시가 14일 오후 2시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슬로건으로 제1회 ‘부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부산의 미래, 바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해양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50여 명, 공개 모집으로 뽑힌 시민 100여 명과 전문가 5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국가 해양정책 중심도시 도약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북극항로 선도 도시 도약 등 5대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 청사 이전을 마쳤고,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는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문구가 처음 명문화됐다. 정부는 올해 9월 북극항로 첫 시범 운항에 이어 2030년 정기 운항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의제 논의에도 초관



부산시가 14일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슬로건으로 제1회 ‘부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부산시

심사였다.

전재수 시장은 해양수도 부산,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비전을 발표하고, 이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해양수도 부산, 현장에서 제안하다’를 주제로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순서를 통해 시민과 시장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재수 시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업은행 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부 기

능 이전이 아닌 산업은행 전체를 부산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 시장은 “산업은행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업은행장, 대통령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며 “아예 통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북극항로에 주목했다. 최근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와 세계 각국의 관련 투자를 언급하며 새로운 상업 항로를 둘러싼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항의 환적·컨테이너 처리 능력과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다. 기존 남방항로와 미주항로, 앞으로 활성화될 북극항로가 부산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시장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제안,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 미래 대한민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해양 분야를 시작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주제로 부산 타운홀 미팅을 차례대로 열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소통을 넓혀갈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영도에 ‘K-OceanX’ 개소

부산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해양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 ‘K-OceanX’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4시30분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K-OceanX 개소식을 열고 해양 특화 연구개발(R&BD)과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센터는 부지 5868㎡, 연면적 1만385㎡ 규모의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로 조성됐다.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개발실, 오픈라운지,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해양 관련 공공기관·대학·연구소와 기업 간 협업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관광공사

SDGs경영 국제인증 획득

부산관광공사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ISO/UNDP FDIS 53001:2026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고,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SO 53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엔 개발계획(UNDP)이 함께 개발 중인 국제 표준으로, SDGs이행을 경영방침·목표·성과 지표(KPI)와 연계해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개선(Act) 순환 체계로 관리하도록 한다. 아직 정식 발간 전 최종국제표준안(FDIS) 단계로, 선언에 머물기 쉬운 SDGs 경영을 심사·인증으로 검증받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 전국 유일 ‘2개 메가 관광권’ 선정

김해공항·대구공항 관광권 지정
2027~2030년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에 신청한 김해공항 관광권과 대구공항 관광권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관광권에 복수 지정됐다.

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 대구공항 관광권은 대구~안동~경주를 잇는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을 통해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관광 소비권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의 메가 관광권 육성은 지방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와 특화 관광자원을 갖춘 연계 도시를 연결해 관광 골든 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통합 브랜드·해외 홍보, 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

치, 교통·결제 편의성, 특화 콘텐츠, K-한류 관광, K-푸드 로드, 기항지 관광 등을 지원한다. 2027년 국비 659억 원과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된다.

경주시는 올해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이어 메가 관광권까지 확보했다. 안동시도 대구공항 관광권 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포항은 2028년 영일만항 본격 개항 시 크루즈 기항지 연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연구원,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관광권 사업을 구상하고 대구·부산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올 하반기에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관계 지자체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관광권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시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에서 ‘2026 부스트 데이(2026 BOOST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영남권 창업 생태계 협력 확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부스트 데이’

포항시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에서 영남권 창업 생태계 협력 확대를 위한 ‘2026 부스트 데이(2026 BOOST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스트 데이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대상을 영남권 전체로 확대했다. 행사에는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등 6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와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포스컹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정락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환영사에 이어 영남권 6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 도전을 앞두고 상반기 창업도시로 지정된 대구, 울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포항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충남 여성 1000명 모여 성평등 의지 다져

제4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성료

충남도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제4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고 도내 여성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대전·세종 여성단체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K-POP고의 식전 공연을 시작

으로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양성평등주간 기념 퍼포먼스, 특강, 화합 한마당 등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고 기념 퍼포먼스와 특강을 통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시군 여성단체의 활동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화합 한마당도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우리 농산물 판매관 6곳을 비롯해 충남사회서비스원, TBN교통방송, 논산세계탈기산업엑스포 홍보관 등이 운영됐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기차 타고 고흥 여행하면 최대 20만원 환급

고흥군, 철도·렌터카 연계 관광지원

고흥군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전라남도렌터카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와 렌터카를 연계한 ‘레일타고 고흥 착!’ 관광지원사업을 15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도 이용객이 고흥까지 편리하게 이동하고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도와 관광지 사이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적극행정 사례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이 조합을 통해

렌터카를 빌려 고흥을 여행하면, 정해진 지원 조건에 따라 1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을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자는 고흥에서 2식 이상 식사하고 관광지 방문 사진을 촬영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관광객의 실제 방문과 소비를 지원 조건에 반영하고, 환급금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관광 혜택이 지역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산청군

‘난축맛돈’ 내륙지역 최초 출하

산청군이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가 개발한 후배지 품종 ‘난축맛돈’을 내륙 지역 최초로 출하했다. 군은 14일 오무면 가마실권역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린 출하 기념식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생산 농가, 난축맛돈연구회, 대한한돈협회 경남협의회 등이 참석해 부위별 전시와 홍보대사 임명식, 시사회 등을 진행했으며 요리연구가 홍신에 셰프와 문정훈 서울대 교수가 난축맛돈의 식재료적 특성과 산업적 가치를 소개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2005년부터 8년간 연구해 2013년 개발한 품종으로, 고급 육질의 제주재래후배지와 생산성이 좋은 랜드레이스의 장점을 결합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교육체험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경북교육청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건립 설계 공모’에서 건축사사무소 마당 서준호 대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육체험센터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 식생활 체험교육과 조리종사자 연수·실습,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선작은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시설을 증축해 중앙 대형 마당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과 새로운 공간을 연결하는 개방형 구조로 계획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떡지순례’ 열풍에 유통가 들썩… 디저트화 신제품 쏟아져

**이마트24 피자설기 등 한정판매
GS25 한정선 협업 신제품 출시
컬리 한과·떡 희소가치 프로젝트**

전통 간식으로 여겨지던 ‘떡’이 2030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대세 디저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명 빵집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빵지순례’에 이어 이색 떡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떡지순례’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안착하자, 유통업계 전반이 유명 떡집과의 협업 및 단독 유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순히 옛 맛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구식 식재료나 현대적 조리 방식을 더해 ‘디저트화’한 퓨전 떡이 핵심 흥행 공식으로 떠오른 영향이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지역 명물로 떠오르는 주요 떡집과의 협업을 진행하며 떡과 관련된 행사와 신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떡지순례 열풍의 최전선은 백화점 팝업스토어다. 최근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이마트24는 17일부터 ‘피자설기’ 등 떡 제품 11종을 한정판매한다. /이마트

광주 유명 떡집 ‘창역떡’ 팝업스토어에는 개점 전인 새벽 6시 30분부터 긴 대기열이 생기며 일주일간 1만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했다. 카스텔라 고물을 문힌 창역떡의 ‘호박인절미’는 SNS에서 품질 대란을 일으키며 브랜드 연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떡지순례 행사 역시 부산 ‘영도다리떡방’, 전북 ‘익산농협떡방앗간’ 등 지역 명물 떡집들이 참여해 2만 명이 넘는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백화점 팝업으로 검증된 화제성은 편의점과 이커머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접근성이 뛰어난 유통망을 통해 줄서서 먹던 지역 및 로드숍 맛집의 떡을 집 앞이나 안방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한 전략이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성수와 서울숲 특화 매장에서 영도다리떡방의 대표 메뉴인 ‘피자설기’ 5종과 익산농협떡방앗간의 화제작 ‘생크림 찹쌀떡’ 등 총 11종을 편의점 업계 최초로 한



한정선 요거트 찹쌀떡. /GS25

정 판매한다. 백설기 위에 피자 토핑을 올리거나 찹쌀떡 안에 생크림을 채워 얼려 먹는 이색 조합을 통해 MZ세대의 취향을 정조준했다.

GS25 역시 서울 성수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찹쌀떡 전문 브랜드 ‘한정선’과 협업해 ‘한정선 요거트 찹쌀떡’을 단독 출시했다. 얼렸을 때 사베트 같은 식감을 내도록 개발해 젊은 층과 외국인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세븐일레븐 또한 60년 전통 경주

부창제과와 손잡고 출시한 ‘호두찹쌀떡’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협찬 디저트로 채택되는 등 K-디저트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컬리에서도 전통 디저트 성장세가 뚜렷하다. 컬리의 최근 3개월간 떡·한과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뛰었고, 특히 창역 ‘호박인절미’는 거래액이 336% 폭증하며 카테고리 1위에 올랐다. 수요가 폭발하자 명장 한과와 이색 떡을 한데 모은 ‘희소가치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선물용과 일상 디저트 수요를 동시 공략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떡 열풍은 전통 떡 자체의 인기라기보다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존속함이나 바삭함을 극대화하고 이색 재료를 결합한 재해석의 결과”라며 “누가 더 친숙한 맛을 신선한 경험으로 전달하느냐가 디저트 MD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취하지 않고 즐겁게… 명절 술자리 달라진다

**상황·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 참여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등 선택지 부상**

명절 술자리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친지끼리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최근에는 음주 여부를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고도 모임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절주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무알코올 제품의 선택지도 다양해지면서다. 특히 추석은 귀성·귀경과 성묘 등 운전 일정이 많은 만큼 음주를 피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실제 음주 빈도도 감소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5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2023년 9.0일에서 2025년 8.8일로 줄었다. 음주하는 날의 하루 평균 음주량 역시 같은 기간 6.7잔에서 6.6잔으로 감소했다.

반면 무알코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라 제로’ 광고 스틸컷.

/하이트진로음료

논알코올을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 전체 주류 매출에서 논알코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에서 올해 상반기 13%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의 음용 상황을 확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테라 제로 0.000’을 통해 운전 전이나 평일 등 기존 맥주 소비와 거리가 있던 상황에서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김원훈과 함께 선보인 광고에서도 월요일

아침, 템플스테이, 예비군 훈련 등 다양한 상황을 배경으로 ‘왜, 안 돼?’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테라 제로 0.000’은 알코올 0.000%의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추석에는 가족 모임과 이동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마실 음료를 고를 때도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운전이나 컨디션 관리 등을 이유로 알코올 섭취를 피하면서도 맥주 특유의 풍미와 청량감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규 팝업스토어

“아디다스 러닝 상품·콘텐츠 체험해보세요”

롯데백화점 ‘서울 100K X 아디다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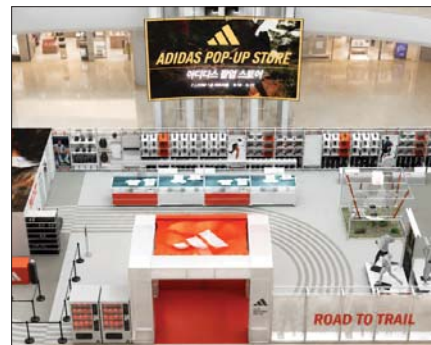
롯데백화점이 가을 러닝 시즌을 맞아 트레일러닝 대회와 연계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롯데월드몰 1층 아트라운지에서 ‘2026 서울(SEOUL) 100K X 아디다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서울 도심과 자연을 가로지르는 트레일러닝 대회 ‘서울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SEOUL 100K)’와 연계해 아디다스의 러닝 상품과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서울 100K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100km·50km·20km 등 3개 종목에 국내외 러너 약 27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아디다스의 ‘로드 투 트레일(Road To Trail)’을 주제로 러닝과 트레일러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서울 100K’ 팝업스토어 전경. /롯데쇼핑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트레일러닝과 러닝에 특화된 신발과 의류, 용품 등 약 115종의 아디다스 러닝 상품을 선보인다.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원하는 문구나 디자인을 새길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미니게임과 자동판매기 이벤트도 운영하고 암슬리브, 반다나 등 러닝용품도 경품으로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CJ제일제당 ‘CJ더마켓’ 새 단장

CJ제일제당의 공식 자사몰이 차별화된 식문화 경험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된다.

CJ제일제당은 자사몰 ‘CJ더마켓’ 모바일 앱을 전면 새 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이 신제품과 트렌드, 혜택을 한눈에 발견하고,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장보기 경험을 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AI 기반 큐레이션과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서비스 및 구매 동선을 최적화해 더욱 자연스러운 ‘발견형 쇼핑’ 환경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내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신규 상품 추가… 소비자 선택지 확대

이마트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마치고 본 판매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과일·축산·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본 판매에서는 신규 상품을 추가하고 가격대별 선택지를 확대했다.

와인에서는 ‘몬테슈프리모 그라나리제르 바세트’와 ‘샤또 레 무아나르+샤또 로브 세트’ 등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들 상품을 포함한 일부 와인 품목은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과일에서는 사전예약 기간 과일 품목 가운데 누적 매출 1위를 기록한 배 선물세트를 본 판매에서도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다. 배 5kg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나주 배’를 행사카드 결제 시 할인 판매한다.

축산에서는 10만원대 한우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한우 냉장 2호 세트’와 ‘피코크 직경매 암소한우 품족 세트’ 등을 행사카드 결제 시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세트로는 전복 15마리로 구성된 ‘이마트 전복 세트 특대’와 ‘특선 영광 참굴비 2호’ 등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알린다

내달 푸드페스타서 브랜드 전략 공유

NS홈쇼핑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익산 하림 파스트키친에서 열리는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함께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하림그룹에 합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방문객에게 소개하고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팝업스토어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내세우는 ‘산지와 고객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근거리 그로서리’를 주제로 구성한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보이고 생활권과 가까운 점포를 기반으로 한장보기 서비스를 소개할 예

정이다.

현장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주요 상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마련한다. 신선식품을 비롯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시식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향후 운영 방향과 성장 계획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선보인다. 방문객이 신선식품과 근거리 장보기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전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NS푸드페스타를 찾은 고객에게 하림그룹에 합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소개하는 자리”라며 “상품과 체험 콘텐츠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추구하는 근거리장보기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유산균·단백질·신선육으로 차별화… 프리미엄 펫푸드 뜬다

hy, 프로바이오틱스 기술 활용
대상, 건식·용품 등 제품군 확대
하림, 오리 등 신선 생고기 접목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양육비 증가로 펫푸드 시장이 급격히 세분화되면서 국내 식품업체가 반려동물 먹거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단순한 사육 대상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료와 간식 역시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전문적인 건강관리 수단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식품기업들은 기존 본업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원료 수급력과 연구개발(R&D) 역량을 펫푸드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특히 유산균, 단백질, 신선 육류 등 자사만의 특화된 핵심 원료를 바탕으로 제품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hy(구한국아쿠르트)는 자사의 독보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역량을 반려동물 사업으로 확장했다. 펫 전용 브랜드 '펫쿠르트



펫쿠르트 건강하게 프로젝트 알

트'를 통해 자체 개발한 특허 유산균을 적용한 반려견용 장 건강 및 체중 관리 제품을 선보였으며, 반려묘를 위한 산양유 기반 라인업도 추가했다. 지난 4월에는 제품 판매를 넘어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케어하는 통합 플랫폼 '뉴도트'를 론칭하며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그룹은 2023년 자회사 대상펫라이프를 설립하고 '닥터뉴토'와 '보사레기' 브랜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간식, 용품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 중이다.

닥터뉴토는 프로틴 드링크, 기능성 주식, 영양 간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어 연골 분말과 해조 갈슘을 활용한 관절 건강 영양제를 출시하는 등 기능

성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라인업 강화에 힘입어 지난해 대상 펫라이프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 식품 사업의 핵심 원료를 펫푸드로 전환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 동원F&B는 자사의 강점인 참치를 핵심 원료로 활용해 2014년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을 출범시켰다. 이후 습식캔부터 건식 사료, 간식까지 제품군을 공격적으로 넓혀왔다.

하림그룹 역시 육류 사업의 노하우를 살려 하림펫푸드를 통해 닭, 오리 등 신선한 생고기와 소고기, 연어를 주원료로 한 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에



/hy 대상펫라이프 닥터뉴토, 고양이 전용 영양 관리 신제품 3종

/대상

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고령화 트렌드와 맞물려 생애주기별 맞춤형 케어 및 초개인과 기술로까지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풀무원은 올해 펫푸드 사업을 총괄 CEO 직속 미래사업부문의 '신성장 SBU' 주력 사업으로 전격 재편했다. 이어 7세 이상 노령견을 겨냥해 씹기 편한 부드러운 제형의 간식 2종을 선보였으며, 노령견의 체중 관리와 영양 보충을 위해 L-카르니틴, 이눌린, 타우린 등 맞춤형 원료를 정교하게 설계했다.

나이가 IT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영양 솔루션도 등장했다. 스타트업 프레스이워는 반려동물의 연령, 활동량, 알레르기 유

무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개체별 최적화된 영양 구성과 식단을 제안하고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펫푸드 시장이 일반 사료 중심에서 관찰·피부·눈 등 고민별 기능성 제품, 생애주기별 맞춤 제품, AI 기반의 개체별 초개인화 제품으로 한 단계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2024년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6000원 증가했으며, 이 중 반려견의 월평균 양육비는 17만 5000원에 달했다. 양육비 증가와 더불어 해외 진출도 활발해져 같은 해 국내 펫푸드 수출액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1억 60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펫푸드가 기존 단순 사료에서 건강 상태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식품 기업들은 기존 원료 경쟁력과 R&D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며 펫푸드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보령, 영업·마케팅 떼고 '파마솔루션' 설립

전문 의약품 영업·마케팅 물적분할
1위 커머셜 플랫폼 구축 목표

오는 2027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보령이 100% 완전 자회사로 커머셜 전문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설립한다. 핵심 유통 전략, 생산·연구개발(R&D), 우주 생명과학 연구 등 3대 성장 축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국내외 제약바이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보령은 15일 이사회를 통해 전문 의약품 영업·마케팅 부문을 독립시켜 물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령파마솔루션은 오는 10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이 신설법인인 전문 의약품 국내 영업·마케팅 인프라를 전담한다. 특히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제약 시장

점유율 10% 돌파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자체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블록버스터 품목을 적극 도입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품목 확대와 전문성 강화로 '국내 1위 커머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인력 유출 방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대책도 마련됐다. 영업·마케팅 및 경영지원 인력은 근로조건 변동 없이 전원 이관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와 성장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보령은 주력 사업인 '생산·R&D' 및 미래 신사업인 '우주 생명과학 연구'에 집중한다. 생산·R&D를 통해서는 '글로벌 필수 의약품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Essential Pharma Company'로도 약한다는 방침이다. 우주 생명과학 연구

에서는 '우주 생명과학 R&D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의 필수 관문'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보령 김정균 대표는 "커머셜 전문화를 위한 보령파마솔루션 출범은 각자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 집중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매각이나 분할 상장 등 내외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보령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로서, 보령의 핵심 성장축으로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며 "영업·마케팅의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최고의 영업·마케팅 인재가 모이는 회사로 만들어, 대한민국 제약 산업 내 압도적 1위 도약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택시기사 96% 배뇨장애… 전립선 관리 강조

동국제약 '카리토폠펜', 개선 도움

동국제약이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배뇨 장애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을 알렸다.

동국제약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택시 운전자' 배뇨장애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택시 운전자 640명 중 96.2%가 최근 한 달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배뇨장애 증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 기준, 일상에 지장을 주는 '중간 이상' 증상 비율은 49.3%로 2명 중 1명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대 38.0%, 50대 52.3%, 60대 53.3%로 50대를 기점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 관계자는 "전립선 비대증은 방치 시 신장 기능 저하나 요로 감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진행성 질환"이라며 "조기 증상이 나타나는 40대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국제약은 카리토폠펜(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약물은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다. 쿠쿠르비트종자유엑스(서양호박씨오일 추출물) 등을 처방에 야뇨, 잔뇨, 빈뇨 등 배뇨장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그 효능과 효과를 허가받았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셀카 한장만 찍으면 피부상태 맞춤 분석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던 전문 피부 분석 서비스가 손안의 모바일 화면 속으로 들어왔다.

CJ올리브영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제품과 스킨케어 루틴을 추천받을 수 있는 '모바일 피부 진단 서비스'를 공식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올리브영 주요 매장에서 운영해 온 체험형 전용 기기 '스킨스캔'을 모바일 앱으로 그대로 구현한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셀카 한 장으로 셀프 관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앱에서 간단한 문진을 마친 뒤 얼굴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피부 유형은 물론 모공, 주름, 수분·유분 밸런스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고용량 임상4상 돌입

처방 저변 다각화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렙시마SC 미국 제품명)'의 240mg 고용량 투여 근거 확보를 위한 미국 임상 4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미국 자가면역질환 시장에서 짐펜트라 처방 저변을 다각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차별화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미국 임상은 미국 내 55개 기관에서 총 447명의 크론병(CD) 및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릭시맙 정맥주사(IV) 제형 고용량 투여군과 짐펜트라 240mg 간의 비열등성을 비교 입증해, 향후 짐펜트라 고용량 투여에 필요한 객관적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을 통해 향후 짐

펜트라 고용량 투여에 요구되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임상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미국 4상 임상을 통해 240mg 고용량 투여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에서도 기존 120mg과 함께 환자 맞춤형 '투 트랙' 처방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용량 다변화와 더불어 짐펜트라 의 잠재 시장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응증 확장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의 잠재 환자군 확대를 목표로 류마티스 관절염(RA)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RA는 미국 내에서도 환자 수가 많고 전체 자가면역질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대형 적응증이다.

짐펜트라는 올해 상반기 매출 99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6.4% 급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동훈 사장, 자사주 1000주 추가 매입

(SK바이오팜)

기업 가치 자신감 드러내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사진)이 지난 11일 자사 주식 1000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취득 평균 단가 7만8800원으로, 총 약 7900만원 규모의 자사주식 취득이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회사 주식 2000주 매입에 나선 지 보름 여만의 추가 매수로, 단기간에 자사주 3000주를 사들인 셈이다.

지난달 27일 이동훈 사장과 같은 날 자사주 500주를 매입했던 유창호 전략부 문장 역시 같은 날 500주를 취득 평균 단가 7만9087원에 추가 매입하며 보유 자사주식을 늘렸다.

주요 경영진 두 명이 짧은 기간 사이 나란히 추가 매입에 나선 것은 중장기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차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달 오파칼림 관련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세노바 메이트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신약 후보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오파칼림은 선택적 칼륨 채널 Kv7 활성제로, 현재 성인 부분발작(POS)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임상 및 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SK바이오팜은 이르면 2029년 중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매콤달콤의 최적 밸런스

리아 불고기 세트

더블 불고기 패티로 든든하게

리아 불고기 더블 레드

NEW

NEW

감자채전 토핑으로 바삭하게

리아 불고기 레드

LOTTERIA™



큐리오시스-제약바이오協, 자율실험실 기술 공유
랩 오토메이션 전문기업 큐리오시스가 국내 신약개발 디지털 전환에 동참한다. 큐리오시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설 시신약연구원과 ‘AI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5년간 자율실험실(SDL) 기술을 공유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파견 등을 추진한다.

/큐리오시스



안성호 에이스경암 이사장, 성남시에 쌀 기부

15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 겸 에이스침대 대표(왼쪽)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백미(10kg) 7500포, 금액으로는 2억1000만원 어치를 성남시청에 기탁했다.

/에이스침대



동아오츠카,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닝 교보재 공개
동아오츠카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각장애 러너와 함께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닝 교보재’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보재는 시각장애 러너와 가이드 러너가 함께 러닝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 방법부터 이동 및 주행 시 유의사항까지 실제 러닝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 매뉴얼 형태로 담았다. 국내외 러너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했다.

/동아오츠카



에스트라, ‘韓 피부건강 엑스포’ 공식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정통 K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학술교류를 통해 피부과학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트라는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피부건강 엑스포’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피부과학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대한피부과학회가 후원하며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확산한다.

/아모레퍼시픽



NH농협금융, 농촌 초등학생에 기부 물품 전달

NH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도사초등학교를 찾아 농촌 초등학생들을 위한 기부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NH농협금융과 NH투자증권이 준비한 수제쿠키 500세트와 문구 500세트는 초록우산을 통해 순천 관내 농촌지역 초등학교 7개교 500여명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NH농협금융

현대차그룹, 중증 장애아동 500명에 특수 유모차 지원

서울어린이대공원서 ‘산책’ 행사
장애아동 신체적 특성 등 반영
기아 PV5 활용 이동 편의성 강화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과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동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이동의 가치’ 중심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15일 중증 장애아동 500명에 맞춤형 특수 유모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을 초청해 ‘산책’ 행사를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일반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와 일상 외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현대차 국내사업지원실 김경조 상무,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김은희 상무,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윤효준 본부장, 밀알복지재단 황대벽 총괄본부장, 와이업 도홍구 대표이사, 밀알복지재단 조성걸 실장이 지난 14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된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 초청 환자 가정 대상 ‘산책’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밀알복지재단, 유모차 전문기업 와이업과 협력해 특수 유모차 500대의 제작·생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 유모차는 중증 장애아동의 신체적 특성과 의료적 필요가 반영됐다. 일반 유모차보다 약 50% 넓어진 시트와 최대 30kg 하중을 견디는 강화 프레임

을 적용했으며, 최대 175도 리클라이닝 기능과 링거 거치 모듈, 50L 수납공간 등을 갖췄다. 차량 작제와 보관 편의를 고려한 원터치 폴딩 기능도 적용했다.

기아 역시 목적기반차량(PBV)을 활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PBV 전용

두 번째 ‘청암히어로즈’에 허원배 회장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스코청암재단, 수상자 선정

40여년간 농업·복지·교육·환경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 온 허원배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사진)이 포스코청암재단의 ‘청암히어로즈’에 선정됐다.

포스코청암재단은 허원배 회장을 청암히어로즈 두 번째 수상자로 선정하고 1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암히어로즈는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허 회장은 1982년 충남 아산의 한 농촌마을에서 무농약 자연농법을 실천하는 청년 생산자 모임을 조직하며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 이 모임은 이후 푸른들영농조합법인으로 성장해 400여명의 생산자가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1985년부터 다양한 공익단체에서 위원과 이사, 소장, 이사



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힘썼다. 대학 교수와 대학 이사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참여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시민모임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복지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최근 10여년간은 환경과 지역 공동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펼치고 시민사회와 대학, 청년, 초·중·고 교생이 참여하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CJ 계열사 6곳, 6600억 대금 조기지급

전년比 지급 규모 2배 늘어

CJ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총 6600억원 규모의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CJ제일제당과 CJ올리브영, CJ대한통운, CJENM 커머스부문,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혜택을 받는 중소 납품업체는 7400

여 곳에 이른다. 전체 지급 규모는 6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오는 18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각 사별로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지급일보다 2주에서 한달가량 선 지급된다.

CJ 관계자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매년 추석 납품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에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진충모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이지연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황의태

부음 ▲ 박보훈(향년 92세)씨 별세, 박혜준·박혜신씨 모친상, 김정석(쿠

팡 부사장)씨 장모상, 임종환(삼성전자·김수민(한국투자증권)씨 외조모상 = 15일, 서울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안성 선영. ▲한필레씨 별세, 성석우씨(파이낸셜뉴스 정치부 기자) 외조모상 =15일 영천전문장례식장 금강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제8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장인화 선임

부산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출신
현장서 경험 쌓은 경제계 인사

장인화부산상공회의소명예회장(사진)이 제8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제8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추천을 거쳐 장인화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3일부터 향후 2년이다. 신임 장인화 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회장·대한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 및

지역경제 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경제계 인사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과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 등을 맡는 등 지역사회와 체육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달곤 현 동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8기에는 부산 등 지역경제 현장에서 쌓아온 장인화 신임 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동반성장 평가와 상생협력의 외연을 더욱 넓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T, 콜센터품질지수 3관왕 ‘패거’

이동통신, 인터넷·IPTV 이어
AX컨택센터혁신상 수상까지

KT가올해콜센터품질지수에서3관왕을 차지했다.KT는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콜센터품질지수(KS-CQI)에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IPTV 2개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부문에서 12년 연속, 초고속인터넷·IPTV 부문은 13년 연속 이룬 성과다. 이번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센터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A X컨택센터혁신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조민선 기자 msjo@

현대그린푸드, 카자흐에 식품공장 건설

알라타우시 총괄청과 ‘맞손’

현대그린푸드가 중앙아시아 신흥시장인 카자흐스탄에 K푸드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국과 유럽 등 인근 시장까지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15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 총괄청(Alatau City Authority)과 식품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알라타우신도시 내 K푸드 생산 시설 구축을 비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현대그린푸드 박홍진 사장(왼쪽)이 알라타우시 총괄청 알리셰르 압디카디로프 대표와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현대그린푸드

롯해 식품 생산·물류 인프라와 생산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햐터그룹
Haetter Group

아이를 위한 특별한 날들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아침 방송에서 어느 신사(神社)의 관리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치고산(七五三)’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시치고산’이란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로 매년 11월 15일 전후에 신사를 찾아 참배한다. 아직 두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 준비를 시작하니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일본인들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한국도 과거 영유아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아이들을 축하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백일과 돌잔치를 한 것이 지금까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일본도 같은 이유에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하나들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가족들은 아이를 데리고 신사를 찾아가는 ‘오미야마이리(お宮参り)’를 한다. 이것이 태어난 아이의 첫 외출로 신사에서 아이의 탄생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그다음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이 된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가 바로 ‘시치고산’이다. 지금은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연령에 따라 다른 의식이었다. 첫 번째가 어릴 때는 단발머리였다가 3세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는 카미오키(髪置き)라는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5세가 된 남자 아이가 처음으로 바지 형태의 전통 예복인 ‘하카마’를 입는 ‘하카마기(袴着)’라는 의식으로 과거 무사사회에서 소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의례였다. 세 번째는 7세가 된 여자아이가 아이용 기모노가 아닌 어른처럼 허리에 제대로 된 오비를 매기 시작하는 ‘오비토키(帯解き)’라는 의식이다. 이 또한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치고산’의 배경에는 과거 어린 아이의 생존 자체가 지금보다 어려웠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일곱 살까지는 신의 아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즉, 일곱 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뜻한다. 따라서 ‘시치고산’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실 여기까지 무사히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례인 것이다. 원래 ‘시치고산’은 11월 15일로 알려져 있는데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그 날짜를 꼭 맞추

기보다는 의미만 살리고 부모의 사정에 맞추어 10월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신사를 방문하고 전문 사진관에서 기념 촬영을 한다. 이때 예복을 구입하면 가격이 비싸므로 대여하게 되는데, 이 예복 대여와 사진관 예약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아 두 달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

일본의 아이들 관련 전통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아와 여아의 성장을 각각 축하하는 것이다. ‘시치고산’도 그렇지만, ‘히나마쓰리(ひな祭り)’와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고 있다. 3월 3일 히나마쓰리에는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 하나인형을 장식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5월 5일 단고노셋쿠에는 잉어 모양의 깃발을 장대에 매달아 남자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출세를 기원한다. 1948년부터 5월 5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이 되었지만, 잉어 장식의 코이노보리(鯉のぼり)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아이들 관련 행사는 화려하고 때로는 유난스럽기까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아이가 건강하고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만큼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삼성전자 흔든 노조위원장 도덕적 잣대 논란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잘못된 일이 없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공적인 돈을 다루거나 조직을 대표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둘러싼 돈 문제를 보면 이 오래된 경구가 떠오른다.

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서는 일부 직원이 실제 주거 조건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거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합원 상당수가 D S부문 소속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

성전자지부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최승호 위원장은 집합용 조끼 등을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했다. 거래 규모는 약 3억7000만원이다. 최 위원장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저렴했고, 계약을 통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물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억 원대 거래를 진행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실질적인 경쟁 절차를 거쳤는지가 더 중요하다. 가격과 품질에서 정찰 경쟁력이 있었다면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고 그 결과로 낙찰받도록 했으면 됐다.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특히 회사의 경영과 처우를 비판하며 ‘공

정’과 ‘양심’을 강조해온 노동조합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회사에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조합원들이 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면 구성원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을 삼성전자 DS부문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선택은 개인의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조직이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해명만으로 논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절차였느냐는 점이다. 회사에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했다면 그 잣대는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6일 (음 8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60년생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72년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세요. 84년생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세요.

49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1년생 매일 매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73년생 사회적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세요. 85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49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1년생 매일 매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73년생 사회적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세요. 85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51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63년생 산 넘어 또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군요. 7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87년생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52년생 못했던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76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8년생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53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65년생 현금에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깊이 생각 후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움 날이 될 것입니다. 89년생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길합니다.

54년생 귀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운아입니다. 66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78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하세요. 90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55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8번입니다. 67년생 용기를 내세요. 79년생 모든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91년생 다음 달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56년생 중심을 잡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80년생 해외여행을 떠날 좋은 시기입니다. 92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57년생 사람은 때로는 낭만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69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81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3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58년생 지출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70년생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82년생 많은 금전을 만지게 됩니다. 94년생 집 매매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면 매우 길합니다.

59년생 동북방이 길방입니다. 71년생 유희에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83년생 어둠을 가도 밝기는 이가 없습니다. 95년생 공익을 위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투랑환주, 은밀한 개혁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순행을 떠난다. 순행을 하는 중에 진시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는 외부에서 모르게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다. 이들은 장남 부소에게 가짜 칙서를 보내 자살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조종하기 쉬운 막내 호해를 황제로 세운다. 황실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었지만, 핵심 기동인 후계자를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동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게 골격은 그대로 둔 채, 핵심인 들보와 기둥을 몰래 교체하여 주도권을 빼앗는 계책을 투랑환주(偷梁換柱)라고 한다. 투랑환주는 삼심육계 중 제25계에 해당하는 전략으로 중요한 것을 다룬 것으로 대체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병법이다.

겉모습의 요란함에 차증하지 말고 내실과 핵심 역량을 은밀히 개혁하는 지혜로 재해석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혁신을 시도할 때는 대부분 이름이나 겉껍데기를 바꾸는 데 매달린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새롭게 하면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혁신은 내부의 핵심 역량, 기술력, 사고방식 등을 새롭게 할 때 일어난다. 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혁신이 아니다. 제품 판매 방식, 연구 인력, 수익 구조 같은 핵심 포인트를 바꿔야 한다. 식당을 운영한다면 가장 잘 팔리는 메뉴의 구성이나 판매 방식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직업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업무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핵심을 바꾸는 것이다. 던지는 메시지는 겉을 요란하게 꾸민다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혁신과 변화는 가장 깊은 곳의 기동을 어떻게 채우고 교체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스한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운 고난이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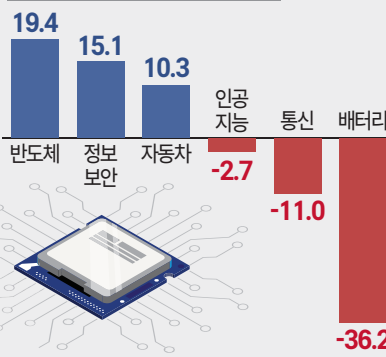
1	9	9	8	7	6	2	1	8
8	2	7	8	1	2	9	9	6
1	8	6	9	2	9	7	8	2
9	7	1	9	2	8	8	6	2
6	2	8	2	9	1	9	7	8
9	8	2	6	8	7	1	2	9
8	6	2	1	9	9	8	2	7
7	1	9	2	8	2	6	8	9
2	9	8	7	6	8	2	9	1

6	9	7	1	2	8	2	8	9
8	9	2	2	8	7	6	1	9
1	8	2	9	6	2	8	7	9
2	8	8	9	6	2	9	7	1
9	2	9	2	7	1	8	6	8
7	1	6	8	9	8	9	2	2
2	7	9	8	2	1	9	6	8
9	6	8	7	1	9	8	2	2
8	2	1	6	2	9	7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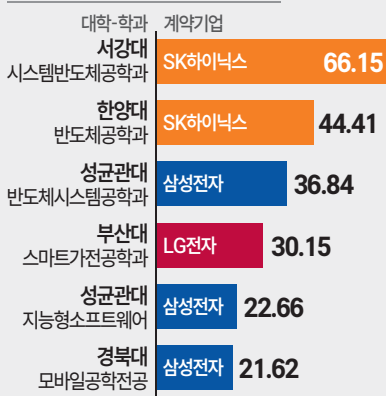
“삼전닉스 갈래요” 대기업 계약학과 수시 9000명 몰렸다

대기업 계약학과 수시 지원

분야별 지원자증감률 단위: %



학교·학과별 경쟁률 단위: 대1



자료/종로학원

대기업 계약학과 지원 ‘역대 최대’ 취업난에 진로보장 학과 선호도↑ 서강대 반도체학과 논술 297대 1 반도체 증가… 배터리·통신 감소 산업 동향 따라 학과별 경쟁률 영향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전자 등 대기업 계약학과에 수험생이 몰리며 올해 수시모집 지원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정보보안, 자동차 관련 계약학과 지원자는 늘어난 반면 배터리와 통신 분야는 감소해 산업 전망에 따라 선호도가 엇갈렸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7개 대기업과 연계된 13개 계약학과에 총 8994명이 지원했다. 전년 7607명보다 1387명(18.2%)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 수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정보보안은

15.1%, 자동차는 10.3% 늘었다. 반면 배터리는 36.2% 급감했고 통신(-11.0%), 인공지능(AI)-2.7%, 디스플레이(-1.1%) 분야도 지원자가 줄었다.

기업별 계약학과 가운데 삼성전자와 연계된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전년보다 309명(18%) 늘었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66.15대 1로, 지원자가 전년보다 354명(36.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지원자는 전년보다 40명(10.3%) 늘어 경쟁률 14.33대 1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와 연계된 숭실대 정보보호학과도 13.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원자가 21명(15.1%) 증가했다.

올해 신설된 LG전자와 부산대의 스마트가전공학과에도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20명 모집에 603명이 지원해 3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SDI와 연계된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는 10.30대 1로 지원자가 전년보다 117명(36.2%) 감소

했다. LG디스플레이와 연계된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12.09대 1로 지원자가 3명(1.1%) 줄었다.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은 지원자가 전년보다 76명 감소했지만 이를 단순히 선호도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6명으로 줄면서 논술 지원자도 290명에서 229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체 수시 모집인원 역시 20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해 경쟁률은 오히려 17.85대 1에서 21.62대 1로 상승했다.

전형별로 보면 논술전형의 높은 경쟁률이 두드러졌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논술전형이 297.67대 1로 가장 높았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논술전형도 211.00대 1에 달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삼성전자) 논술 수리형은 124.10대 1,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삼성전자) 논술 수리형은 75.80대 1을 기록했다. 부산대 스마트가전공학과(LG전자) 논술 일

반전형도 50.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되는 대기업 계약학과가 자연계 수험생들의 주요 선호 학과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반도체 뿐 아니라 스마트가전과 자동차, 정보보안 등으로 선호 분야가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기업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가전, 자동차, 정보보안 관련 학과의 선호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계약학과가 자연계 수험생들에게 하나의 뚜렷한 선호 학과군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해당 기업과 산업의 동향에 따라 계약학과별 선호도와 합격선이 매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교육청, 위축됐던 초등 체험학습 활성화

현장체험학습 79%→26%로 급감 18억 투입… 보조인력·버스 등 지원 학교 부담 낮추고, 학생에 체험기회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1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보조인력 배치와 체험버스 지원 등을 확대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지난해 51%, 올해 26%로 2년 연속 크게 떨어졌다. 전체 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도 같은 기간 74%에서 58%, 31%로 하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2026 서울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본예산 10억7000만원과 별도로 18억원의 추경을 확보했다.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책임과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8억원의 추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6억4000만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에 투입된다. 체험버스 무상지원에 4억8000만원, 학습소품 및 특색캠프에 3억3000만원, 사전답사 교통비에 1억7000만원, 체험비 지원에 1억4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긴급지원팀 구성과 법률 대응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소송 책임제’도 검토한다. 가정의 공동책임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특이민원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보조인력의 인력풀 관리부터 계약·매칭·인건비 지급까지 맡아 학교에 체험학습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예산 확충과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전통시장 3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오늘부터 5일간 ‘환급행사’ 구매금액별 최대 4만원 환급

고양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고양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능곡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성수기를 맞아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으로, 두 품목을 모두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 점포에서 받은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역삼·자양 성장거점으로… ‘다핵도시’ 재편

서울시, 용적률 최대 1300% 적용 성내·창동·중곡·동산 ‘생활거점’으로

서울시가 중심지와 환승역, 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문화·생활 기능이 결합된 ‘다핵도시’로 재편한다.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여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고, 강동구 성내동과 도봉구 창동 등 비역세권 간선도로변 4곳은 일자리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장거

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력 활성화 사업 첫 시범사업지 6곳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확대한 후속 조치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680-1과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 등 2곳이다.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산업·업무·주거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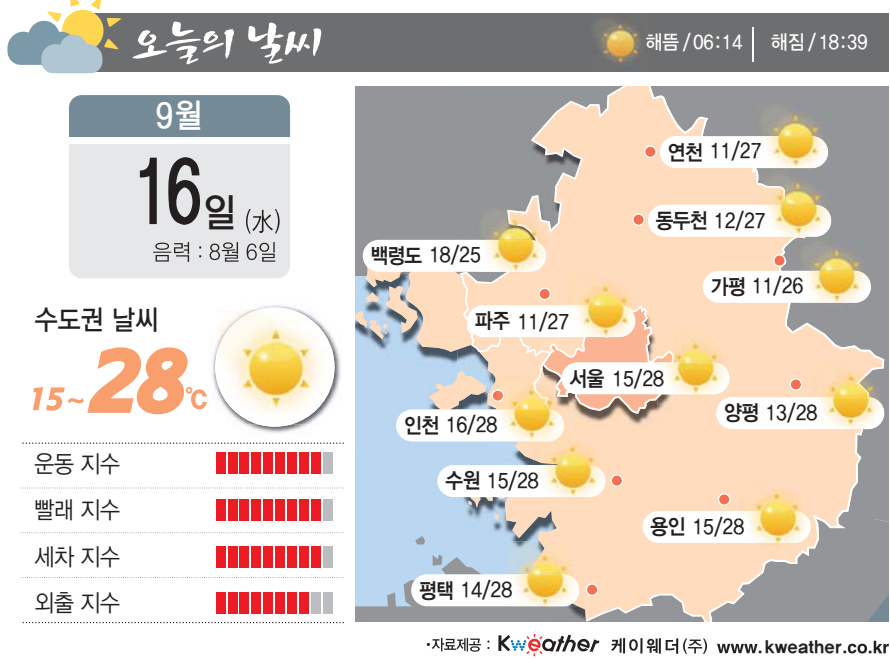
역삼동 대상지는 5475.1㎡ 규모로 선정릉역 환승역세권이자 폭 48m 인주로에 접해 있다. 시는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상

업·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해 테헤란로에 집중된 강남도심의 업무·문화 기능을 인주로와 선정릉역 일대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자양동 대상지는 5132.6㎡ 규모로 건대입구역 환승역세권이자 아차산로에 접해 있다. 세종대와 어린이대공원에 인접하고 성수지역중심에 위치한 만큼 성수·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역과 역사이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첫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448-1, 도봉구 창동 715-1, 광진구 중곡동 587-2, 금천구 독산동 1066-2 등 4곳이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10분마다 로봇 1대 생산”…중서 연 1만대 규모 공장 가동
▲유럽 12개국, ‘미·중·러 견제’ 북극 주둔 병력 확대 촉구
/사진 뉴시스

▲“내 코인도 팔 수 있다”…트럼프, 클래리티법 통과 위해 ‘양보’
▲유엔 안보리, 총회 기간 AI 위협 논의…“실존적 위협”

▲이란 공격에 美 외교시설 2490억 피해…첫 집계, 이라크에 집중
▲EU,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연령별 차등·안전설계 의무



떡지순례 열풍에
디지털 신제품
쏟아진다
L1



Life

프리미엄 펫푸드
유산균·신선육 등
제품 차별화
L2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metro® · metro®경제

친환경에 자율주행까지... 똑똑한 상용차, 물류 구조 바꾼다

친환경 상용차, 운송효율화로 확대
현대차, 수소 상용차 미래동력으로
만트릭·볼보 등 자율주행기술 결합
무배출·무인 물류시스템 구축 가속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경쟁 축이 전기·수소 등 동력원의 전환에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운송 효율화로 확대되고 있다.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운행거리와 가동률이 높은 만큼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될 경우 연료비뿐 아니라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까지 낮출 수 있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와 함께 수소전기 상용차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대차의 대표 차종인 엑시언트 수소전 기트럭은 유럽 5개국에서 165대가 운행되며 올해 1월 기준, 누적 주행거리 2000만

km를 기록했다. 북미에서도 2023년 이후 63대가 160만km 이상을 주행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친환경 물류 구축 사업인 '카이로스 프로젝트'에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 8대를 공급했다.

중동에서는 수소버스를 앞세웠다. 현대차는 이달 초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 에너지 유통사 옴코와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무스카트 대중교통 노선에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기아는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을 중심으로 배송·서플 등 다양한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맞춤형 상용차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P·BV·상용차 영역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포트투닷을 중심으로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양산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상용차 업체 만트릭버스그룹은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친환경 물류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운송 효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전략이다.

볼보트럭은 전기트럭의 장거리 운송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 전기트럭의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한편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를 병행하는 멀티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볼보트럭은 현재 최대 700km 주행이 가능한 80톤급 차세대 대형 전기트럭을 공개했으며 2040년에는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같은 변화는 향후 전기트럭에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운전자 부족과 운송비 상승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배출·무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경쟁축이 차량 성능을 넘어 충전·데이터·자율주행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10	축사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중소기업 읍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40	기조강연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15:10~15:40	강연	감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대형트럭의 군집주행이 현실화 될 경우 교통사고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업계에서는 향후 상용차 시장이 단순히 차량 판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릿 관리시스템(FMS), 충전 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의 총소유비용(TCO)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 전공 교수는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강연에서 하 교수는 기술개발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하고 검증하고 업데이트하고 확산하는 국가 시스템'의 속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하 교수는 국가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전략의 최종 목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국가가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하 교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시범지구 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박민영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박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로봇, 자율주행기술과의 융복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로지스틱스(Logistics) 4.0'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엔 물류 기업이 운송과 보관 위주의 단순 기능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공급망관리(SCM)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하대 물류AX실증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 교수는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분과 위원 등도 맡고 있다.

감병우 대동 개발부문장 겸 전무



감병우 (주)대동 개발부문장 겸 전무는 '농업모빌리티의 AX/GX 추진 현황'에 대해 강연을 한다. 국내 1위 농기계 제조기업인 대동은 '미

래농업 리딩 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팜 등의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랙터 전동화 모델 출시 등으로 친환경 농기계 시장을 주도하고 'FUTURE VISION 2030'을 통해 농업 분야에 피지컬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다. '농업 피지컬 AI로 글로벌 농업의 AX를 선도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AI 트랙터' 개발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감 전무는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를 거쳐 대동에서 개발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박 대표는 커머스(Commerce) 시장이

오프라인 매장→자사몰·온라인→통합 플랫폼→브랜드 직판매→SNS·라이브커머스→국가 간 직접 거래→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기반 구매로 넘어오면서 7단계 진화가 끝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가 편해질 수록 그 뒤의 물류는 곱셈 구조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젠 AI가 예측하고 사람이 판단하며 시스템이 실행되는 구조다. 물류에서 GX(녹색전환)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크기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면 된다. 이것이 물류의 지속가능성이다. 박 대표는 2017년 아워박스를 창업해 온-디맨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는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스오토(Mars Auto)'는 자율주행 트럭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다. 대형트럭 실주행 데이터만 세계에서 가장 긴 2000만km를 확보했다. 한국에서도 가장 긴 250km의 누적 자율주행거리 기록을 갖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마스오토의 프로그램이 깔린 40피트 자율주행 트레일러로 부산항까지 운반했고, 부품을 선박에 실은 뒤 미국 롱비치항에선 53피트 트레일러 자율주행으로 앨라배마·조지아주에 있는 모달공장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최대어' 하현승, '10억원' 한기주 넘고 KBO 신인 최고액 짝꿍까 /사진 뉴시스
▲김시우, 내달 제네시스 챔피언십 출전 확정...임성재와 우승 경쟁

▲탁구 신유빈, 출국 전 장애인 대표팀에 깜짝선물 전달
▲'스노보드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 19일 스노리그 월드컵 챌린지 참가

▲'통산 140홀드' 롯데 김태혁, 현역 은퇴...“팬들 관심 잊지 않고 보답할 것”
▲아시안게임 개최국 일본, 최다 919명 출전...난민팀 2명 최소